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저널

디자인 충남

vol.13 December. 2021

cpdc 충청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저널 vol.13 December. 2021

발행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14
www.cpdc.re.kr

기획

박혜은

디자인 및 편집

오병찬 · 강경연 · 김나래

주관부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제작 · 인쇄

삼성애드피아

CONTENTS

Issue

002 스마트 건축에 대한 소고 국립공주대학교_오형석 교수

Level up

01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디자인 관리 자문단 제도 에이지건축사사무소
이선주 건축사

Review

020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 문, 담장, CCTV를 새롭게 바라보기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한민경 교수

032 유니버설디자인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선진 사례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최령 센터장

Team 홍성군

046 고미당 마을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2020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임중구 전문위원

Focus on 센터소식

052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문화제 수상 작품

062 2021년도 정책연구 성과

064 2014~2021 연구성과

065 센터소식

국내 정책동향

072 중앙부처

078 광역지방자치단체

093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스마트 건축에 대한 소고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_오형석 교수

‘스마트(Smart)’ 과다 복용

붉은 여왕 효과(Red Queen Effect)가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 격인 ‘겨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에피소드에서 유래되었다. 소설 속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을 만나 함께 숲속 나무 아래를 계속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이유를 묻는 앨리스에게 붉은 여왕은 이 세계는 있는 힘을 다해 움직여도 주변의 세계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야 겨우 제자리에 머무를 수 있으며 만약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라야 한다고 설명해준다.

이 내용에 흥미를 느낀 진화생물학자 리 밴 베일런(Leigh Van Valen)은 발전하는 경쟁 상대에 맞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는 주체는 결국 도태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붉은 여왕 효과라고 불렀다. 이는 경영학에 바로 흡수되어, 경쟁에서 앞서가는 기업은 시장에서 승자가 되지만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며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훨씬 빨리 앞지를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의 성공을 설명한다.

그래서인지 국가 미래 정책이나 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얘기할 때 조금만 마음만 몇 곱절 앞서 나간 듯한 달콤한 단어들 이 자주 등장한다. 어느 분야에 서나 유행하는 화두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스마트’란 단어는 국가정책과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전반에 걸쳐 필수 접두사처럼 언급되는 마치 미

래를 여는 천일야화의 마법 주문 같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미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다소 뒷전이고 당장 경제적 효과가 드러날 것 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 기술들의 나열로 스마트란 용어가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을 잘 볼 수 없는 사람이 꼬끼리를 만지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개별 기술들만 가지고 전체를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냉정해야 할 언론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홈쇼핑 광고처럼 장밋빛 미래로 꾸미거나 지나치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경고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미래의 변화와 기회,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려면 모호한 테크놀로지 용어의 과다한 사용은 지양해야 하고 실천적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조건 앞서 나가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정답은 아닐 것이다. 장하준은 그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기세탁기와 전기다리미가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혁신적으로 감소시켜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 교육 투자 증진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뤘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혁명이 만들어낸 성장은 그에 비해 아직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창조적 기술만이 미래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분명하며 ‘스마트’라는 양면적인 단어가 대변하는 변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선언적인 속도를 지향하기보다는 공공 및 민간, 학계 및 시민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탄력적이면서 포괄적인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밤(Smart Bomb)

스마트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독어의 ‘스머탄(Smeortan)’에서 유래하였는데 원래 의미는 고통스럽게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을 말하였다. 이것이 1300년대에 와서 빠르고 활동적이고 영리한단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현재 광범위하게 쓰이는 ‘지능에 의해 행동한다’는 함축적 의미는 1970년대 스마트 밤(Smart Bomb)에 사용되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유도탄(Guided



▲ 세계 최초 레이저 유도탄(Laser Guided Bomb)¹⁾

Bomb)이라고 부르는 이 폭탄은 기존의 자유 낙하형 폭탄과 다르게 레이저나 GPS를 이용하여 목표를 향해 활강해서 표적에 도달한다. 고전 전쟁영화에서 하늘을 뒤덮는 폭격기가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쏟아부어 민간인, 시가지뿐만 아니라 역사 유물과 문화재까지 초토화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목표물을 '유도에 의해' 정확하게 타격하는 스마트 폭탄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스마트'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흥미롭다. 유도탄은 대량 살상용 전쟁 무기였으나 민간인들의 불필요한 피해는 줄일 수 있었고, 기술과 정보의 우위가 가지는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된 예시로 보인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이 가지는 상호대립과 모순은 인간에게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1) 출처 : National Museum of US Airforce

패러다임 변화와 건축

우리는 우리가 살고, 일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변화는 규모, 범위, 복잡성 면에서 인류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를 것이다. 10년 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이미 많은 변화에 따라 적응과 혼란의 시기를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은 대규모 철강 생산, 증기 기관, 전신의 광범위한 사용과 철도 도로 보급이 특징이다. 그 결과 이전에는 획득하기 어려웠던 자원과 정보에 대해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졌다. 또한 표준화, 대량 노동, 조직의 관료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규모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건축의 경우 지역 외부의 재료에 대한 노출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현지에서보다 글로벌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다양성을 넓혀갔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분배와 그에 대한 대가인 대량 생산 확대, 노동 집약적 프로세스 자동화로 인해 발생했다. 이것은 교육 또는 서비스 전문직, 전문 중산층 증가와 더불어 소비주의 상승과 생활 수준을 높였다. 이 시기에 건축은 제조 부품과 대량 생산된 건물 구성 요소로 모더니즘의 길을 가능하게 했다. 육체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표준화를 통해 현대 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3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 전자 기계 장치에서 디지털 컴퓨터에 이르는 정보 혁명과 인터넷의 부상을 의미한다. 기계에 대한 정보의 우위, 컴퓨터로 제어되는 스마트 장치와 시스템 개발로 인해 문화와 지적 패러다임은 세계화된 지식, 정보, 자원 및 경제로 전환되었다. 컴퓨터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세 번째 산업 혁명은 건축가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면과 건물을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형태에서 벗어난 자유 형태의 건물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건축 정체성의 혁명, 전례 없는 건물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발전, 빅데이터의 우위를 통한 물리와 디지털 융합이 특징이다. 로봇 공학, 네트워크, 나노 기술, 양자 컴퓨팅 및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부상으로 인해 10년 또는 20년 후의 세상은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공통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미래 건축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순응하며 능력과 역할의 진화를 통해 적절한 회복탄력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의 습득과 적용에만 한정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확인된다. 이른바 첨단기술을 업무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통합적인 접근이 다소 부족하다. BIM 설계, 사물 인터넷, 드론, 로봇, 영상인식, 3D 프린팅, 자율주행, AR&VR, 센서,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융합된 큰 그림이 아니라 건설단계별로 역지로 옥여넣는 형국이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게 산업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건축

건축 분야에서 스마트 혹은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설계 과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컴퓨터 설계 도구), 새로운 건설기술(3D 프린팅 및 로봇 공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건물, 도시 및 생활에 빠르게 통합되는 혁신적인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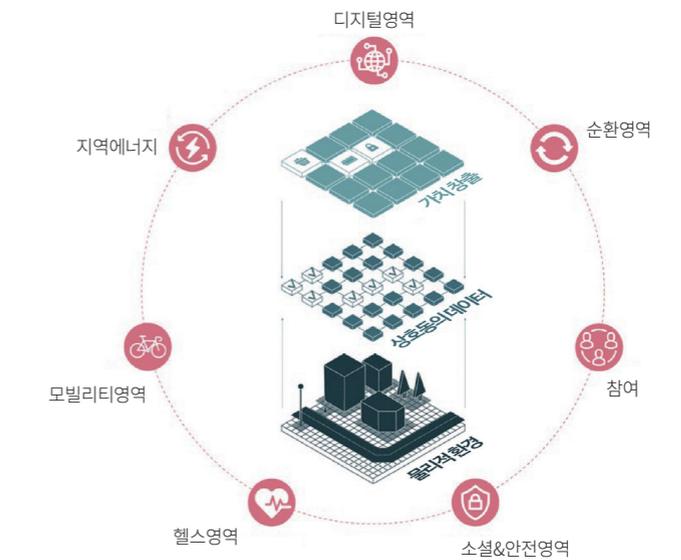
디지털 도구를 통해 설계자는 변수를 도구에 입력하여 많은 시간과 계산을 절약하고,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생성할 수 있다. 디지털 건축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비선형 건물이나 유기적인 패턴 등의 결과만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는 건축 트렌드에 따른 미학적 선택에 가깝다. 디지털 도구를 통한 고가의 상징적인 디자인 방식은 2000년대 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성능, 지속 가능, 인간 중심, 기술 중심, 그리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건물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최적의 건축 대안으로 방향성이 달라졌다. 따라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매개 변수의 적용은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데 사용되고 종종 눈에 보이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건물 성능이나 운용 경험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다음 레벨의 혁신적인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은 기술 중심성보다는 문화적 영향과 좀 더 관련이 있다. 건축 분야에서 설계자는 이제 디자인 사고와 데이터 기술을 결합하여 인간 중심의 도시와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용자 행동과 관련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고 결정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건축 환경에서의 인간의 흐름과 행동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 프로세스에 사용할 새로운 매개 변수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와 변수의 조합은 센서, 드론 또는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 또는 이동성과 같은 특정 도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일상 활동에 반응, 학습, 적응하는 센서 기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제어와 공간 개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빌딩을 반응형 건축물로 진화시킬 수 있다. 최근 건축 분야에서 중요한 확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통

합적인 고급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폭발적인 발전과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건축가가 도시와 건축물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스마트 건축 실험실 - 100 Homes by UN Sense

한국의 유명 백화점 설계로 알려진 UN Studio가 2018년 설립한 UN Sense는 바로 이러한 통합적인 디지털 현실에서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취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 기반 설계를 위한 협업과 통합 작업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UN Sense는 연결 기술과 공간 디자인의 혼합 현실을 설계하기 위해 학술 전문가, 상업적 전략파트너, 지역 시민 및 기업가와 협력하는 건축가, 상호 작용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구원 및 미래학자로 팀을 구성하였다. 이 팀의 목표는 지식과 기술 기반을 확장하여 문화적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 통합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립된 장인 정신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하고,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만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이 제시하는 과제와 기회에 정면으로 맞서며 건축 분야가 그 생명력과 관련성을 유지하고 향후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00 Homes 플랜 기본 구조²⁾

2) 출처 : UN Studio (저자 재구성)

이를 위해 그들은 네덜란드 헬몬드에 브레인포트 스마트 디스트릭트(Brainport Smart District)를 조성하고 100개의 집을 테스트 베드 형태로 진행한다. 마스터플랜 내에서 100가구의 적응형 근린주구를 건설하고 주택, 에너지, 이동성 및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호스팅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100 Homes는 이웃 수준에서 새로운 상호 정보 교환 모델을 테스트한다.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스마트 기술을 가정, 자동차 및 공공장소에 통합함으로써 일상 활동(쇼핑, 요리, 가사)을 더 쉽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증한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 환경 - 상호 동적인 데이터 교환 - 가치 창출의 세 가지 층위를 가지며 디지털 - 지역에너지 - 순환 - 모빌리티 - 참여 - 헬스 - 소셜 및 안전 영역에서 작동한다.

아래의 예시는 이러한 스마트 기술과 공간 정보, 거주민 커뮤니티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먼저 식품에 관련된 사례는 물리적 환경, 상호 데이터 및 가치 계층이 식품 영역에서 데이터 교환을 통해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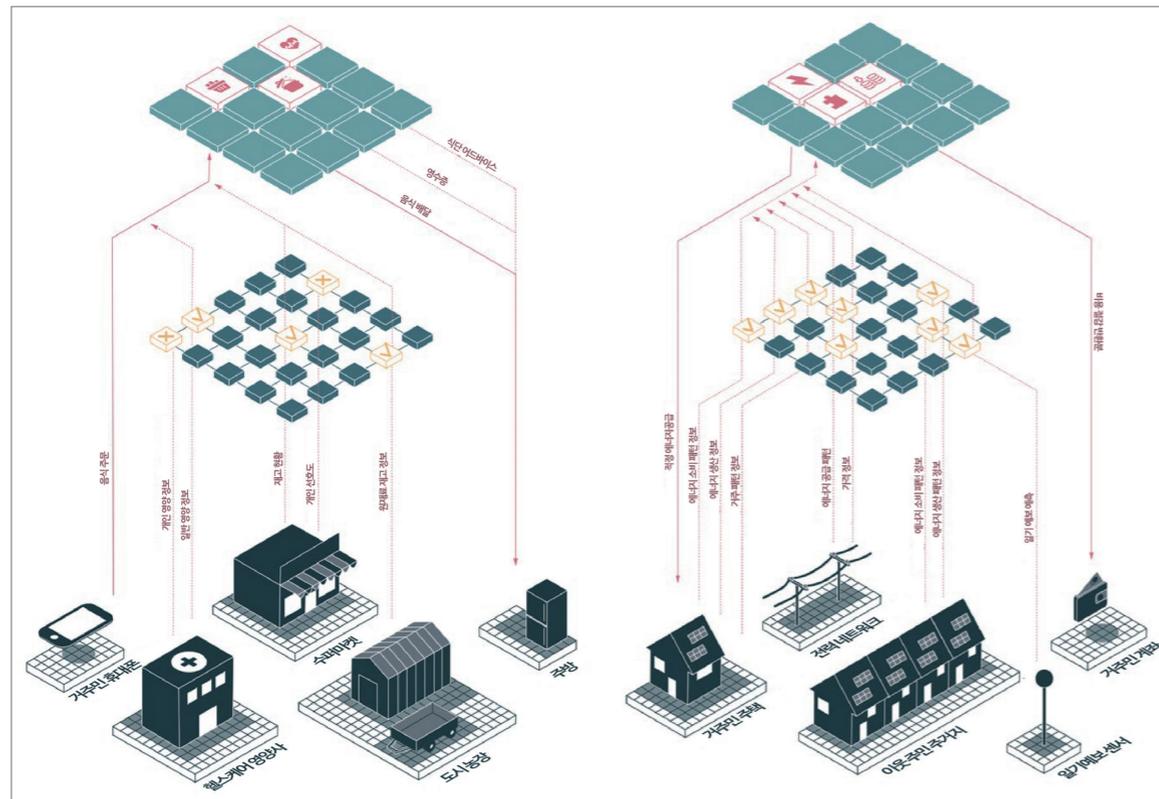
연결된다. 데이터 계층이 동의와 동등한 교환을 촉진하므로 가치 계층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에너지 사용 사례의 경우 거주자는 균등 교환이 핵심 원칙인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의 대가로 개인 데이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100 Homes 프로젝트는 데이터와 기술이 근린주구 수준에 적용되어 주민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하는 혁신적 환경인 '살아있는 실험실'이다. 2022년 첫 번째 입주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필요와 소비 습관을 연결하고 적응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기본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고정 비용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 학습 적응형 도시에서는 정확한 요구와 관련 서비스를 미리 결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가는 거주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건축 공간 사용을 통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스마트 시대 건축가의 역할은

역사를 통틀어 개인이 지금보다 모든 종류의 자원과 표현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가졌던 시기는 없었다. 새로운 기술망, 네트워크 및 복잡한 자율 시스템에 따른 대량 패턴과 패러다임으로 개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런 환경이 스마트한 공간으로, 게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력, 상호적응형 행태, 지속적인 변화와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수의 사용자, 다양한 환경과 클라이언트, 더 많은 이해당사자, 혁신적인 기술의 확장이라는 상황에서 건축가는 제작자에서 협력자의 역할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재탄생의 시기가 곧 닥칠 것이다.

스마트한 일상 공간을 위해 건축가는 전통적, 예술적, 개인주의적 표현의 공간을 넘어, 대화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의미 있는 미래의 건축 공간을 생성하는 집단적 경험을 이끄는 촉진자가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감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인지적 다양성을 활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사고와 집단 엔트로피로 공간과 건축물을 구축해 가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이는 매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스마트 건축 또는 미래의 건축이 건축가와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성장통이다.



▲ 식품 영역의 정보 교환과 에너지의 균등 교환 예시³⁾

3) 출처 : UN Studio (저자 재구성)

LEVEL UP

01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디자인 관리 자문단 제도

이선주 건축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디자인 관리 자문단 제도



에이지건축사사무소_이선주 건축사

충남의 디자인 관리 자문단 제도 도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 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공디자인은 공간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물적 최종 결과물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성에 가치지향을 두고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부여하는 모든 디자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과 달리,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을 실행 주체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자인 실행의 중요도에서도 산업디자인은 효율성을, 공공디자인은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지향 가치 측면에서 공공성과 공익성 증진이 목표가 되며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확립하고 물적 대상의 의미보다 공공의 이익과 공공성에 바탕을 둔 ‘가치’와 ‘주체’의 개념이다.

	Industrial DESIGN	Public DESIGN
법률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조(목적)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1조(목적)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
실행주체	기업 주도 / 사업 기업의 이윤과 연계	공공기관 주도 사업 공공영역 주체
투자자본	기업 자본	국민의 세금
중요도	효율성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법과 제도 기반)
지향 가치	판매 증진 목표	공공성과 공익성 증진 목표
수혜자	소비자 / 고객	국민 / 시민



공공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물적 대상’ 개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공공성의 바탕을 둔 ‘가치’와 ‘주체’의 의미

* 출처 : 공공디자인의 정의(문화체육관광부, 2017)

▲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개념 비교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주도하여 제작·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국민과 국가,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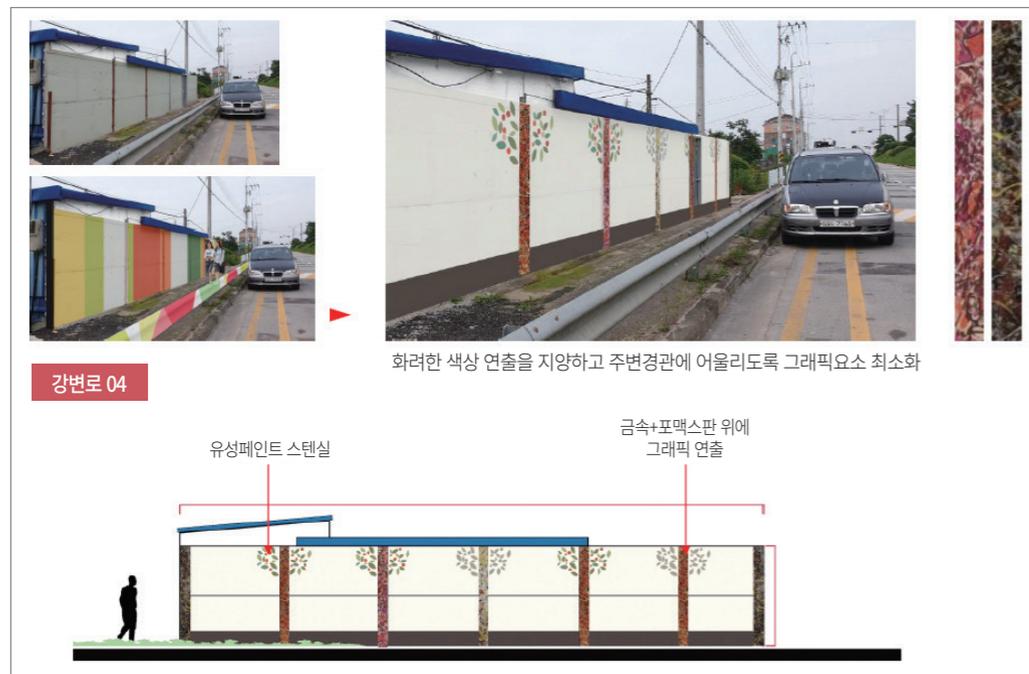
2021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경관형성 시범사업, 지역 현안 사업 분야의 총 12개 사업이며, 약 45억 원이 투입되었다. 필자는 사업 담당자(공무원)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충남에서 도입하고 있는 디자인 관리 자문단 제도의 민간전문가로서 사업과정에 참여(아산지역 2개소)하였다.

디자인 관리 자문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추진 방향 설정,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단계별 자문을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은 통합성을 갖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장기프로젝트로 공공디자인을 인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에서 중요한 사항인 안전성과 기능성, 조화성, 사후 관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여러 해 동안 경험이 축적되었음에도 최근의 디자인 공모사업은 고유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이 아닌 예전 사업의 답습과 획일화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무미건조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야간경관계획이나 간판개선사업, 벽화사업, 안내사인 설치 등 어느 장소에 방문하여도 비슷한 사업이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시공이 완료된 현장을 점검하면, 사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관리가 부족해 보이는 시설물들이 많은데, 자문할 때 논의했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이 부족하여 위치 선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방치된 시설물들이 오히려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사업 발굴단계는 물론,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전자문 단계(전문가 참여)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 벽화 그리기(제출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참가 사례)



▲ 간판개선사업(제출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참가 사례)

문제점 및 애로사항

이번에 처음 도입된 디자인 관리 자문단 제도에 참여하면서 현장 조사 후 자문 사항이 현장에 반영되기까지, 그리고 시공 후에 느꼈던 공공사업으로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디자인 관리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사업 중 “은양온천역 골목재생 프로젝트(은양으로, 여기온)”는 2021년 12월 현재 시공이 완료되었다. 사례 1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온양온천역으로, 구도심으로 연결되는 골목길로 계단의 단이 높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특성이 있었다. 이에, 계단 일부에 단을 한칸씩 추가하여 계단의 높이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시공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례 2는 포켓 쉼터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추후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다.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 결과 오픈 공간으로 계획된 사업대상지에 시선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되어 있었다. 사례 3은 계획과 달리 볼라드의 시인성이 부족하게 시공 완료되었다. 소액의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사업으로서의 공익성과 안전성, 사후 관리를 고려한 사업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디자인 관리 자문단은 전문가로서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디자인 관리 자문단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가 부족하고, 디자인 관리 자문단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디자인 관리 자문단의 자문이 진행되고 난 이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디자인 관리 자문단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디자인 관리 자문단과 협업으로 진행된 공공사업은 일정부분 심의를 간소화하거나, 디자인 관리 자문단 참석을 전제로 심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후 사업 진행(시공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자문도 필요할 것이다.

▼ 은양은천역 골목재생 프로젝트



* 출처 : 제출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료/현장사진 202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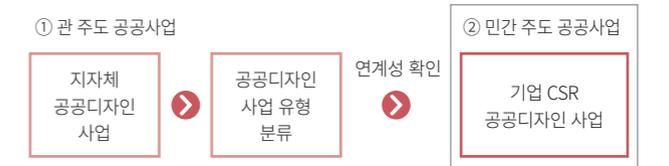
개선사항

관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행정조직 교육이 이뤄져야 지속성과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다. 아산 시만 하여도 여러 개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고 유기적인 연속성을 가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는 담당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관리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 관리 자문단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경관협정을 맺는다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치되는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대 및 효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국가기관 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민간으로 확장되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가치의 문화 기반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 출처 : 국내 CSV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소, 2021)

디자인 관리 자문단의 역할을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전략을 연계해,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 설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시각적 전달 매체 범주를 넘어 통합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REVIEW

020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 문, 담장, CCTV를 새롭게 바라보기

한민경 교수

032 유니버설디자인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선진 사례

최령 센터장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 문, 담장, CCTV를 새롭게 바라보기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_한민경 교수

공공디자인을 통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고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지역 주민들이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범죄 대응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접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은 공간을 찾아 디자인을 통해 변화시키고(re-design), 범죄피해 없이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네를 조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한다.

아래에서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design out crime)¹⁾ 안전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내외 공공디자인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공공디자인 사례들은 문, 담장과 같이 건축에서 필수적인 구조물이나 CCTV와 같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는 감시시스템에 디자인적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범죄예방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1. 공원에 문을 달다

우리는 ‘문을 통과한다’, ‘문으로 들어간다’ 등과 같이 문이라는 건축적 요소에 이동이나 진입과 관련된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문이 하나의 공간적 영역을 이루는 경계와 그 영역에 이르기 위한 통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가능한 표현들이다.

통상 문은 건축물의 일부로서 담이나 벽과 같은 경계 요소와 함께 있고, 문틀과 문짝



▲ 거북골근린공원 출입 게이트 설치(전)²⁾



▲ 거북골근린공원 출입 게이트 설치(후)³⁾

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찰 앞에 세워져 있는 일주문(一柱門)과 같이 출입을 제한하기보다는 영역을 뜻하는 의미가 더 크고 문짝을 달지 않는 양식 또한 존재한다. 거북골근린공원에 설치된 공원 출입 게이트는 이러한 일주문의 현대적인 변용이라 할 만하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거북골근린공원은 누구나 자신이 사는 동네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사가 다소 있고 공원으로 활용되는 넓은 야산이다. 거북골근린공원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주변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지름길로 이용됐다. 그런데 공원 출입구가 분명하지 않아 처음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어디가 공원의 입구인지조차 알기 어려웠고, 공원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난 샛길과 돌레길을 따라 공원을 출입하고 있었다.

1) Design Out Crime은 2008년~2010년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범죄 방지를 위한 디자인 및 기술연합(Design and Technology Alliance Against Crime)과 디자인위원회(Design Council)가 추진한 계획명이다. [출처] [https://www.designcouncil.org.uk/resources/guide/designing-out-crime-designers-guide\(2021.11.19. 확인\)](https://www.designcouncil.org.uk/resources/guide/designing-out-crime-designers-guide(2021.11.19. 확인))

2) 출처: 필자 촬영

3) 출처: 필자 촬영



▲ 거북골근린공원 출입 게이트(야간)⁴⁾

이에 거북골근린공원 출입 지점을 명확히 알림으로써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감을 높이고 녹지 등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디자인으로서 공원 출입 게이트 설치를 구상하게 되었다.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출입 지점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연번을 부여하여 공원을 찾는 사람이 길을 찾거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프레임의 색은 명도가 높은 녹색으로 설정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면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다소 대비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하였다.

게이트 프레임 상단에 LED 조명을 부착하여 야간 산책 시 공원이 음침하고 두려운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거북골근린공원의 출입 게이트 설치 사례는 구조물 설치가 어색하게 여겨지는 공원에서도 주변과 잘 어울리며 실용적이고, 독립적인 느낌을 주는 구조물 설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거북골근린공원 출입 게이트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설치된 공원 출입구를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117명 중 107명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역 주민들은 공원 출입문을 수시로 지나고 있었다. 공원 출입문이 지역 주민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였음을 알 수 있다. 출입구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지역 주민들에게 출입구가 설치된 이후 거북골근린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런 편이다' 및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출입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의 78.5%(84명)로, 거북골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출입구를 인지한 지역 주민들이 평가하는 거북골근린공원 이용의 안전도는 5점 만점 중 4.0점이었다⁵⁾.

2. 문에 심미성과 실용성을 더하다

문은 이동이나 진입과 같은 주된 기능에 더하여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방문자에게 알려주는 표식이 되기도 한다. 대개 세로가 긴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재질로 된 문패에 거주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새겨서 눈에 잘 띄게 문 앞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문패를 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문패 부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지만, 문이나 문주(門柱)에 거주자의 이름이 쓰인 문패가 걸려 있는 풍경은 주택이 빼곡하게 자리한 골목길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문패 외에도 주택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문에 실용적인 기능을 더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야간에 문을 드나드는 사람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조명을 부착하기도 하고, 우편이나 택배를 수령하기 위한 바구니를 걸어두기도 한다. 다만, 문에 걸리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집마다 제각각 다른 위치에 문패 등을 부착하면서 골목이 전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고, 바구니 안이 흰히 들여다보여 우편물이나 택배물이 분실되기도 한다. 골목에서 포착되는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무질서가 커뮤니티의 사회적 무질서를 높이고 안전감을 낮추며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Wilson & Kelling, 1982)'은 이와 같은 골목의 무질서 정비에 주목하게 하는 논거다.



▲ 일본의 웰컴 월 설치 사례(1)⁶⁾

4) 출처 : 이음파트너스 제공

5) 박준휘 · 조성현 · 한민경(2020),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http://www.nihon-kogyo.co.jp/product/interior/ex02_0001.html



▲ 일본의 웰컴 월 설치 사례(2)⁷⁾

일본의 주택 거주자들은 문에 문패, 우편함, 조명, 인터폰 등을 '주렁주렁'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출입 지점에 작은 벽을 세우고 그 벽에 가지런하게 부착하는 '웰컴 월(welcome wall)'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웰컴 월 설치 시에는 담장이나 문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벽을 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주로 대신한다. 웰컴 월에는 거주자의 성(姓)만을 표기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우편물이나 택배물은 벽 전면에 보이는 철제로 된 함(宅配ボックス)에 투입하도록 하고, 거주자는 벽 후면에서 함을 열어 꺼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우편물이나 택배물을 분실할 우려가 낮다. 이처럼 문패, 우편함, 조명, 인터폰 등이 심미적이고도 실용적으로 통합된 작은 벽 또는 문주는 거주자의 개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주택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 일본의 경우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웰컴 월을 완제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어서 거주자는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기만 하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웰컴 월 설치 사례⁸⁾



▲ 일본의 웰컴 월 설치 사례(3)⁸⁾

서울 광진구 자양 4동 주택가는 주택 자체도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자양동 양꼬치골목'으로 널리 알려진 변화가와 맞닿아 있어 변화가의 무질서가 주택가로 유입되기 쉬운 상황이었다. 문은 도색한 지 오래되어 낡고 관리되지 않은 인상을 주었고, 유제품 배달 가방이나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 등을 우편함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소한 우편물 분실이 잦았으며, 좁은 골목길에 여러 채의 주택이 뽀뽀하게 자리 잡고 있어 주소를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낙후된 동네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자양 4동 거주자들의 동네에 대한 애착과 자존감을 높이고 영역성(territoria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주에 우편함과 조명, 주소를 통합하여 부착하는 디자인 솔루션이 적용되었다. 문과 우편함의 색상을 동일하게 하여 가지런한 느낌을 더했으며, 주소 위에 센서등을 부착하여 야간에도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7) 출처 : <https://sotoya.jp/?p=17633>

8) 출처 : <https://store.shopping.yahoo.co.jp/tokyo-gardening/80201014.html#gid=itemImage&pid=3>

9)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448>

3. 열린 담장을 세우다

담장은 집 등 건축물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이나 돌, 벽돌 등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을 가리킨다. 담장은 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담장 안쪽을 보호하고 담장 바깥쪽에서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담장이 높고 두꺼울수록, 그리고 담장 축조에 쓰이는 자재가 단단할수록 담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위압감과 이질감이 더 커진다. 공간 구분과 내부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장이 높고 두꺼우며 단단한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오늘날에는 위압감과 이질감을 최소화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로 자리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앞에서 살펴본 웰컴 월은 문과 담장 없이도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노팅엄 시(city of Nottingham) 인근 러딩턴(Ruddington)에 위치한 익스페리언(Experian) 데이터 센터의 담장은 내부를 보호하면서도 개방감을 주는 역설적인 두 개의 가치를 조화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익스페리언은 세계 44개국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2004년 러딩턴에 위치한 2,600㎡의 부지에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재해 복구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였는데¹⁰⁾,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물리적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170m 길이의 담장을 축조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한편, 재해 복구용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서버용 컴퓨터가 3천 대가 넘었기 때문에 서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수 확보 및 항온항습 장치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 Experian 社の 데이터 센터 담장(주간)¹¹⁾

▼ Experian 社の 데이터 센터 담장(야간)¹²⁾



10) <https://www.datacenterdynamics.com/en/news/credit-checking-the-data-center>(2021.11.19. 확인)

11) 출처 : https://www.rosl.org.uk/rosl_news/930-designing-out-crime

12) 출처 : https://www.designcouncil.org.uk/sites/default/files/asset/document/designersGuide_digital_0_0.pdf

데이터 센터는 평온한 교외 지역의 러딩턴에 위화감을 일으키지 않게 요새 같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보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담장 자재를 나무로 채택하고 중간중간 작은 틈을 내어 개방감을 주었다. 이는 수직 담장을 세우면서도 건너편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시각적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조경 양식인 하하 스타일(hà-hà style)을 적용한 결과다. 또한 데이터 센터 담장 외곽에는 해자(壕字, moat)와 같은 작은 개울을 내어 담장으로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서버 냉각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였다. 담장에 난 틈 사이로는 24시간 서버 구동으로 인해 늘 환하게 밝혀진 데이터 센터의 불빛이 새어 나와 은은한 조명 효과가 나타난다. 이 담장은 범죄예방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인 사례로 영국 디자인위원회가 발간한 범죄예방 가이드에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4. CCTV 관제 모니터에 캐릭터를 입히다

많은 시민은 CCTV가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공공 CCTV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9%(1,780명)가 공공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듯, 응답자 100명 중 65명꼴로 우리 동네에 더 많은 공공 CCTV가 설치되면 좋겠다고 답하였으며, 동네에 공공 CCTV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부정적인 응답자는 100명당 6명 정도에 불과했다¹³⁾. 이처럼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CCTV가 갖는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에 힘입어 공공장소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지역에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CTV를 이용하여 촬영되는 공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관제(管制, control)라고 일컫는다. CCTV는 곧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CCTV는 범죄예방이나 수사,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장소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긴 하지만, 공공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과 같은 대의(大義)를 위하여 어느 정도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것을 감내한다.



▲ 캐릭터 이미지 처리된 CCTV 관제화면(1)¹⁴⁾

CCTV 설치가 허용된 공공장소에서 CCTV를 운용할 때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 주체로서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가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는 사람이더라도 CCTV를 통해 촬영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마냥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이다. 해당 공공장소가 CCTV를 통해 관제 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CCTV 관제 요원들만 관제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감시가 지니는 불편하고 침입적인 속성에서 비롯한다.

13) 한민경·박현호·C.W.R. Webster Robert Carr(2018),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출처 : 이음파트너스 제공



▲ 캐릭터 이미지 처리된 CCTV 관제화면(2)¹⁵⁾

서울 성동구 금호2, 3가동에 위치한 금남시장에는 CCTV 관제의 은밀함을 유쾌하게 뒤집는 시도가 있었다. 통상 CCTV 관제실에 두는 모니터의 위치를 시장 골목으로 이동시켜 CCTV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시에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촬영된 사람의 얼굴을 모니터 위에 캐릭터 이미지 등으로 비식별 처리한 것이다. 즉,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켜 시장을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캐릭터 이미지는 하회탈, 교복 차림 등 요일 및 시간대에 따라 바꿈으로써 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서로 다른 캐릭터 이미지를 접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활기와 발랄함을 더하는 유희적인 기능도 갖도록 했다. CCTV 관제 화면은 또한 상점 절도 등을 의도한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자기 행동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범행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 캐릭터 이미지 처리된 CCTV 관제화면(3)¹⁶⁾

통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캐릭터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모니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지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68.7%, 79명). 캐릭터를 입힌 CCTV 모니터의 인지율은 반사거울이나 안내판과 같이 통상적인 디자인 요소보다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¹⁷⁾.

자칫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반사거울을 붙이고 조명을 밝히고 벽화를 그리는 것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표준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위 사례들을 통해 인위적인 구조물을 늘리지 않더라도 기존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가운데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안전감을 높이며 감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이 계속하여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15) 출처 : 이음파트너스 제공

16) 출처 : 이음파트너스 제공

17) 박준휘·조성현·한민경(2020),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니버설디자인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선진 사례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_최명 센터장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

모두에게 알려진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정의는 “남녀노소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쾌적하며 알기 쉬운 제품·환경·정보 만들기를, 특수한 배려를 더 하지 않고(Invisible Design)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또 동사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사용 가능한 디자인 과정을, 명사로는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작과 현재_국외

유니버설디자인은 1997년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 1941~1998)²⁾ 등이 유니버설디자인 7가지 원칙을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원칙의 확립에 있어 대표적 인물로 일컬어지는 로널드 메이스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던 건축가로, 우리가 무장애 건축으로 이해하고 있는 BF(Barrier Free)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디자인의 보편성 혹은 범용성을 다루는 디자인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 로널드 메이스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것으로 인해 접근성을 다루는 BF와 혼용되고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는 로널드 메이스의 초기 정의를 토대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2) 그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용어를 만들고 작품에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였으며 교육자였다. [출처]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https://projects.ncsu.edu/ncsu/design/cud/about_us/usronmace.htm(2021.11.13. 확인)

<오사카에 설치된 고령자 체험 및 관련 제품 전시장: 고령자 유의체험을 할 수 있으며 고령자용으로 개발된 다양한 상품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 고령자 유의체험 중인 방문객

▲ 전동휠체어로 경사 및 통로 폭 등에 대한 체험

▲ 통로 사이에 트레치를 설치하여 실생활의 위험 경험

7가지 원칙은 차별 없는, 혹은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약자의 사회적, 신체적 접근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⁴⁾. 이러한 영향 탓에 로널드 메이스 사망 이후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용품을 개발하는 제품디자인에 주로 활용되는 등, 오랜 기간 정체기를 거쳤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일본의 영향이다. 일본은 2000년, 총인구 대비 7% 이상의 인구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고령자를 위한 제품디자인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정된 제품으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을 제품디자인에 도입하여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하며 심미성을 잃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⁵⁾.

특히 도요타자동차, 세키스이하우스, 파나소닉 등 일본 유수의 기업이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철학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출처: 필자 촬영

4) 7가지 원칙은 N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Design의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에 아카이빙되어 제공되고 있다. 자료의 다운로드는 https://projects.ncsu.edu/ncsu/design/cud/about_ud/udprinciples.htm에서 가능하다.(2021.11.13. 확인)

5) 이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 나아가 미국도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를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도요타자동차의 유니버설디자인 원칙과 관련 상품의 전시-체험을 계획한 사례>



▲ 도요타자동차의 유니버설디자인이 '안(安)·락(樂)·단(單)'임을 표현한 전시 패널 ▲ 미래형 개인용 모빌리티



▲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차량

또한 시즈오카를 시작으로 구마모토, 도쿄도 등의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개발과 정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일본 전역에 뿌리 내림하였으며,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사회를 만드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지속해서 일본 사회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되고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6) 출처 : 필자 촬영

<도쿄지하철 역사 및 차량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S07'과 '오가와마치(小川町)'라는 역명을 함께 제공하고, 도착 역사의 출구 동선도 미리 그림으로 안내하는 차량 안내 체계



▲ 탑승구 진입 공간에 현재 역을 중심으로 목적지 가는 역을 번호체계와 함께 안내 ▲ 역사의 기둥 면을 활용한 안내사인 제공

또,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은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연구하는 영국의 헬렌 함린 센터(The Helen Hamlyn Centre for Design)⁸⁾의 48시간 챌린지 워크숍 프로그램, 2025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노르웨이를 구축한다는 2009~2013 액션 플랜을 수립한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등과 연계하면서 좋은 제품과 환경, 제도를 만드는 디자인 철학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확산시켰다.

7) 출처 : 필자 촬영

8) 1991년 설립된 헬렌 함린 센터는 영국 왕실 미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산하 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포용적 디자인을 연구하는 센터이다. 디자인 챌린지라고 명명된 48시간 설계는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줄리아 카심(Julia Cassim)을 통해 학회 등에서 일본에 소개되었다. [출처] <http://www.eng.cam.ac.uk/news/edc-graduates-participated-48-hour-inclusive-design-challenge-tokyo>(2021.11.12. 확인)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액션 플랜에 따라 진행된 지자체별 사례>



▲역 플랫폼에서 연결되는 보행동로(오슬로역)



▲ 눈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넓은 캐노피를 확보(학교)



▲ 기존 단차를 없앨 수 있도록 EV 설치(학교)



▲ 아파트 단지 내 조성된 수변공간과 휠체어 진입 통로



▲ 단차 해소를 위해 설치된 경사로(유치원)



▲ 휠체어 아동들도 모래놀이가 가능한 놀이공간(유치원)

두 번째는 2006년 채택된 UN의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의 관련이다. UNCRPD의 제2조¹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은 협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무가 되었다. 이에 아일랜드¹¹⁾, 호주 등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영국에서 사용하던 ‘포용적 디자인’으로 용어를 전환하고 있다. 초창기 유니버설디자인 7가지 원칙 개발에도 참여하였던 미국 IHCD(The Institute for Human Centered Design)¹²⁾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9) 출처 : 필자 촬영, 노르웨이는 유니버설디자인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의 역사, 학교, 시청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 사진은 2012년 본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유치한 제1회 국제유니버설디자인심포지움(오슬로)에서 마련한 다양한 견학지 사례 중 일부

10) United Nat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isability의 제2조, [출처]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article-2-definitions.html>(2021.11.12. 확인)

11) 아일랜드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UD, The Centre for Excellence in Universal Design)의 설립은 장애인 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출처] The Centre for Excellence in Universal Design(CEUD)의 소개글, <https://universaldesign.ie/about-us>(2021.11.12. 확인)

12) [출처] Institute for Human Centered Design, www.humancenterreddesign.org(2021.11.12. 확인)

- ① 다양성 인정 및 다양성 존중의 의미
- ②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서 광범위한 청중의 공감 형성 가능
- ③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단일 해결안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균형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노르웨이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대신 ‘포용적 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¹³⁾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이나 문화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일본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보다는 사용자 중심, 혹은 참여의 제품을 만드는¹⁴⁾ 기업 정신으로 해석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도입하고 확산하는 디자인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유럽의 여러 국가가 유니버설디자인 혹은 ‘포용성(inclusiveness)’의 이름으로 공공 환경의 성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런던과 바르셀로나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관광 중심으로 도시 접근성을 높이려 하였고, 2022년 프랑스도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오스트리아는 특히 교통기관 등을 중심으로 ‘여성 친화’에 초점을 맞추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은 무장애 인증 기준을 도입하여 약자의 ‘도시권’을 강화하고 있다.

<런던의 교통과 공공 가로, 도시재생 등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¹⁵⁾>



▲ 런던의 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쉽도록 저층 버스로 운영



▲ 역 주위에 설치된 ‘알기 쉬운 런던’의 안내사인 시스템. 관광 편의 및 활성화는 도모



▲ 런던 중심부의 세인트폴 대성당과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밀레니엄다리는 유모차와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있음

13) [출처] Design and Architecture Norway, DOGA, <https://doga.no/en>(2021.11.12. 확인)

14) 일본의 제품 만들기는 모노즈쿠리(Monozukuri, ものづくり)라 한다. 이는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인체공학과 이용행태에 기반하여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15) 출처 : 필자 촬영

<오스트리아의 교통기관 및 공공 가로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¹⁶⁾>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문에 리프트가 설치된 기차

▲ 빈의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 교통기관에 설치된 약자 우선 안내사인(빈)

▲ 고원식 횡단보도를 조성하여 이면도로의 통행 속도를 30km/h로 줄인 생활 가로 조성(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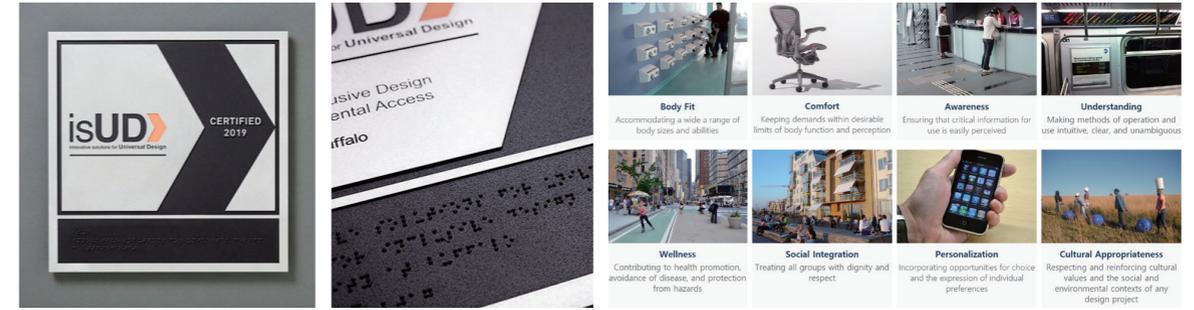
한편 미국은 최근 유니버설디자인을 다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변화도 도모하고 있다.

버팔로 대학에 설치된 Center for Inclusive Design and Environmental Access에서는 7가지 원칙을 발전시켜 2012년 새롭게 제시한 8가지 목표¹⁷⁾를 기반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 'is UD(innovation solutions for Universal Design)'를 제공¹⁸⁾하고 있다. 수년간 연구를 통해 입증된 증거 기반의 솔루션으로 설계 및 시공, 운영에 적용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9개 부문의 500여 개의 솔루션을 제공¹⁹⁾하고 있다.

설계 프로세스, 공간 확보, 순환, 환경품질, 대지, 공간, 가구와 장비, 서비스, 그리고 정책의 9개 부문별로 상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서비스 등의 항목에서는 폭넓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16) 출처 : 필자 촬영
 17) 출처 : <http://www.buffalo.edu/access/help-and-support/topic3/GoalsOfUniversalDesign.html>(2021.11.12. 확인)
 18) isUD(innovation solutions for Universal Design, <https://thisisud.com>(2021.11.13. 확인))
 19) isUD(innovation solutions for Universal Design, <https://thisisud.com/solutions>(2021.11.13. 확인))

<University at Buffalo's Center for Inclusive Design and Environmental Access에서 진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과 컨설팅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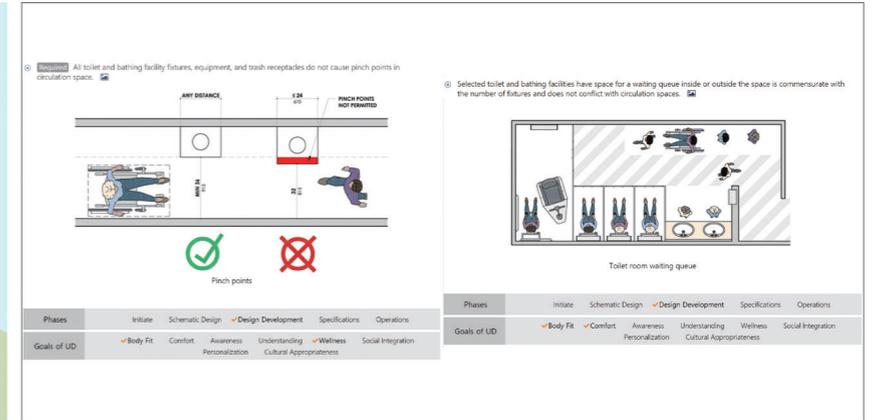


▲ 인증 마크

▲ UD 적용 목표



▲ 솔루션 구성도



▲ 솔루션(가이드)

개발된 기준에 따라 최초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2015년 준공된 그랜드 래피즈 YMCA²¹⁾이다.

다양한 신체 크기와 능력을 수용한 이용자의 이동 동선과 공간계획, 그리고 색약자들은 물론, 모든 연령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쉬운 길 찾기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20) 이미지 출처 : isUD(innovation solutions for Universal Design, <https://thisisud.com>(2021.11.13. 확인))
 21)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YMCA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YMCA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버팔로 대학(University at Buffalo/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최신 뉴스, <https://ed.buffalo.edu/information/news-events/news.host.html/content/shared/university/news/news-center-releases/2016/01/002.detail.html>(2021.11.13. 확인)

<그랜드 래피즈 YMCA에 적용된 사례 예시²²⁾>



▲ 모든 연령대와 능력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운동장비



▲ 등반 경로와 난이도 식별이 쉽도록 설계된 암벽 등반 벽



▲ 3인-4인의 교행이 가능한 경사램프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많은 사례 중 한 예시

미국에서는 소개한 사례 이외에도 학교, 박물관, 병원, 공원 등에 적용된 선진 사례를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최근 화장실, 스포츠 시설 등에 적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호주, 싱가포르 등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중국 등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작과 현재_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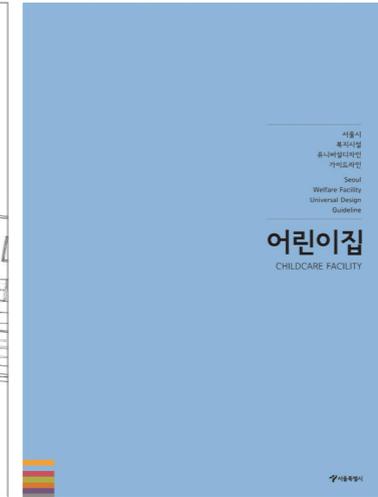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을 동시에 도입하여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했다. 2000년에 개최된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²³⁾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된 유니버설디자인은, 2004년~2005년 한가람미술관에서의 2차례 전시²⁴⁾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례가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2004년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가 시행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의해 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²⁵⁾가 설립되어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및 관련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 22) 버팔로대학(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최신 뉴스, [https://ed.buffalo.edu/information/news-events/news.host.html/content/shared/university/news/news-center-releases/2016/01/002.detail.html\(2021.11.13. 확인\)](https://ed.buffalo.edu/information/news-events/news.host.html/content/shared/university/news/news-center-releases/2016/01/002.detail.html(2021.11.13. 확인))
- 23)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World Congress on Environmental Design for the New Millennium)는 2000년 11월 한국에서 유니버설디자인·그린디자인·문화디자인 세계대회가 순차적으로 열린 대회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www.liveto.com/intercom/news/news_35.html\(2021.11.12. 확인\)](http://www.liveto.com/intercom/news/news_35.html(2021.11.12. 확인))
- 24)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2004년 11월 12일에서 12월 12일까지 '이 시대의 좋은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전'이 개최되었고, 2005년 9월 9일에서 10월 3일까지 '유니버설디자인 : 인간을 위한 도시디자인'이 연속 개최되었다. 이는 2001년부터 한가람미술관이 도시환경과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온 전시의 일환이었다.
- 25) 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는 2021년 현재 예산 문제로 운영을 멈춘 상태로, 이처럼 동력이 부족하여 운영을 중단한 사례는 국내외에 많이 있다. [출처] [https://cms1.ks.ac.kr/koiac/Contents.do?mCode=MN0971\(2021.11.12. 확인\)](https://cms1.ks.ac.kr/koiac/Contents.do?mCode=MN0971(2021.11.12. 확인))

<2011년 이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및 관련 사업을 지속해 온 서울특별시 사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



▲ 서울특별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24종)



▲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 출입구임을 알리는 안내 제공(인지 향상)²⁶⁾

관련 제도로는 2008년 제정된 화성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시작으로 광역지자체로는 2013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1년 11월 현재²⁷⁾ 24개 지자체와 1개 교육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운용²⁸⁾되고 있다. 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각종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를 개설²⁹⁾하여 컨설팅 이외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 통합가이드 외에도 복지시설, 경로당, 화장실 등 관련 가이드 24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의 행정부처와 국립공원, 산림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여 실제 조성하는 환경에 적용·활용하고 있다.

- 26) 출처 : 필자 촬영
- 27) 출처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법령 및 제도, [출처] <http://www.sudc.or.kr/main/intro/intro10.do>
- 28)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통합공공디자인조례로 변경되고 있으며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29)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2020년 6월 1일 정식 오픈하였으며, 컨설팅,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이동 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출처] <http://www.sudc.or.kr>

<국립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 적용 사례³⁰⁾>



▲ 가이드라인 표지



▲ 무장애 탐방로에 설치된 노선도



▲ 교행이 가능한 데크로 연결되는 탐방로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행복민원실과 공간혁신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많은 기관과 공간이 이 상을 받았으며 지금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 장애인개발원에서는 매년 BF 인증 분야 중 가장 우수한 건축물에 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³¹⁾, 2021년 개설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시상 제도를 마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마무리

세계 곳곳에서는 건축환경을 비롯하여 상품과 서비스 분야 등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그 가치가 확산해 가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 의식의 성장과도 관계가 있다.

30) 출처 : 필자 촬영,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에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탐방로와 캠핑장 등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무장애 탐방로와 캠핑장은 휠체어 사용자도 탐방과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무장애 탐방로에 대한 안내 및 탐방 데크 등을 조성하여 탐방 약자의 국립공원 향유권을 지원하고 있다.

31)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대전, [출처] [https://www.koddi.or.kr/ud/index\(2021.12.17. 확인\)](https://www.koddi.or.kr/ud/index(2021.12.17. 확인))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수상 사례³²⁾>



▲ 이용객 시야 및 낮은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각진 형태의 안내사인 시스템을 도입한 김포공항



▲ 나무를 사용하여 공간에 따뜻한 정서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 행복민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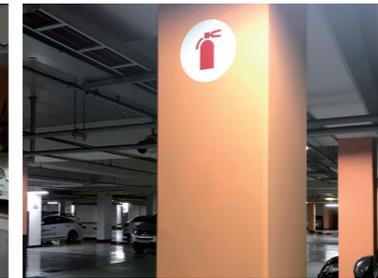


▲ 중심 가로를 조성하여 지역사회개발 및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한 이동 동선을 제공한 GS건설 단지 사례

<NH임대아파트에 적용된 색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2020년 행정안전부 공간혁신 부분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³³⁾>



▲ 각 동의 진입구와 연결 횡단보도 인지가 쉽도록 설계



▲ 소방기기 및 안전벨의 위치 파악이 쉽도록 기둥에 색채 적용



▲ 출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벽면에 색채 및 서체 적용

도시를 누리고 즐기며 이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³⁴⁾이 우리가 모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것을 함께 공감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던 답안이 아닌, 새로운 답을 찾고자 하는 혁신적 도전이 필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의의와 가치는 다양한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도전의 결과이자,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전이 지속되어야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환경과 서비스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요시히코 가와우치, 유니버설디자인, 선인, 2005.4.4.
2. 이연숙, 유니버설디자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2.28.
3. Roberta L. Null, 유니버설디자인, 태림문화사, 1999.4.10.

32) 출처 : 필자 촬영

33) 출처 : 필자 촬영

34)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개념은 거주자들에게 두 가지 주요 권리가 있다고 본다. (1) 도시 공간 사용권과 (2) 도시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그것이다.

TEAM

홍성군

046 고미당 마을

「2020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임종구 전문위원

“역사와 문화가 아름다운 살고 싶은”
고미당 마을
「2020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_임중구 전문위원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이란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경관법의 경관협정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관 주도의 경관개선사업은 대부분 획일적이며 지역 특성이 없는 경관을 초래했고, 사업 이후에는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었다. 충남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을 보존 및 관리하고, 특화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충남형 경관협정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0년 3월 처음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홍성군 장곡면 산성1리 ‘고미당 마을’을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 고미당 마을 자원¹⁾



▲ 경관협정 시범사업 실습 교육²⁾



▲ 전문가들과 마을 산책³⁾

고미당 마을은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하고 예산군 광시면, 청양군 비봉면이 인접해 있어 마을을 가로지르는 지방도 619호선, 96호선의 차량 통행이 잦다. 전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있으며, 자연 자원인 무한천, 학성산을 비롯하여 사운고택, 예당큰집, 식기박물관, 홍성문학관, 내포문화숲길(백제부흥길)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운고택(중요 민속자료 198호)을 중심으로 고택체험, 고택스테이&작은음악회, 종가음식체험, 숲산책(학성산성), 다도,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외부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고미당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주민 결속력을 다지고 마을의 역사자원을 보존 및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운고택 주변에 노후화된 건축물의 입면 및 담장(대문), 다양한 원색 지붕, 흉물스러운 폐가, 노후화된 부속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농업생산 폐기물 등이 누적되고 방치되어 마을 경관을 저해하고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들은 2018년 6월 경관(협정) 교육을 시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0년 6월 마을의 전통을 살리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업비 3억 8천만 원 규모의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출처: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2) 출처: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3) 출처: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 체결

고미당 마을은 경관협정을 통해 전통적인 경관자원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걷기 좋은 마을 경관을 만들어내었다. 노후화된 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특색 있는 마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정의 기본원칙을 만들었다.

- ①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발굴하고 유지·관리·운영하도록 한다.
- ② 각종 건축물, 시설물 및 식재는 경관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맞도록 한다.
- ③ 경관 조성의 수혜자인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도록 한다.
- ④ 협정으로 만들어진 경관은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며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

경관협정 체결자는 사업 대상 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43가구이며, 대상 면적은 약 154,000㎡이다. 협정의 내용은 마을 공공공간, 주택 및 공용공간의 식재, 깨끗한 마을 경관 가꾸기를 위한 주민 활동,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과 관리 등으로 구분하였고 세부 내용은 ① 공공부문에 마을 정원, 공동작업장, 마을안길, 화단, 공용주차장, 버스정류장 등, ② 민간부문에 담장, 지붕, 개인 창고, 폐가, 개인 농기계 및 농기구, 생활 물품, 폐자재 등의 경관 유지·관리·운영이다. 또한 세부적인 경관 가이드라인 및 협정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협정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 간 경관협정을 체결하였고, 홍성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및 고시하였다.



▲ 고미당 마을 경관 마스터플랜⁴⁾

향후 진행할 경관협정 H/W 사업은 담장 정비, 지붕 도색, 미니화단 및 마을 정원 조성, 가드너 공동작업장 조성, 슬레이트 철거 등이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다.

<경관협정운영회 개요 및 지원조직>

- 명칭** • 고미당마을 경관협정운영회
- 목적** • 홍성군 장곡면 산성1리의 전통미가 살아 숨 쉬는 “고미당마을 100년 경관방문나라”라는 경관전략을 실행 시키기 위하여 주민스스로가 참여 하는 경관협정추진을 목적으로 함
- 주민조직** • 산성1리 주민으로 조직된 **경관관리단을 경관관리분과, 마을정원관리분과, 경관 사업홍보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 역할을 수행함
- 지원조직** • 마을 주민 스스로 원활한 경관협정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홍성군은 **자문위원 및 어드바이저** 구성을 협조하고 경관협정 과정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분야에 따라 자문 및 기술/행정적 지원을 시행함



▲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운영회⁴⁾

100년을 내다본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 시범사업」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고령인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등 마을 경관의 개선방안 및 유지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관협정서, 협정사업을 발굴하였다. 과정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으나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두차례 받으며 주민들은 경관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만족도 또한 높았다.

팔십이 넘은 어르신의 “지금이 아닌 10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마을로 귀촌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말씀에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끼며 본 사업이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아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4) 출처: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5) 출처: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FOCUS ON

센터소식

052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문화제 수상 작품

062 2021년도 정책연구 성과

064 2014~2021 연구성과

065 센터소식

제민천: 물의 쉼터

Site
 제민천(濟民川)은 충청남도 공주시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방 2급 하천이다.
 하천 근방은 공주시의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물의 골목 안들기 사업'을 통해 강성 카페, 생태공원 등이 만들어지며 관광적으로 발전된 상황이다.

Background
 설문조사, 주민인터뷰를 통해 현재 제민천 자체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쉼터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했다. 하천길은 오직 동네 주민들의 산책로, 학생들의 등/하굣길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민천을 시민들이 즐겁게 머무르는, 휴식의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Workshop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쉼터를 제안 하기 위해, 공주시 제민천 일대, 봉황초 학생들 대상으로 워크숍 진행
 지역 주민이기도 한 학생들과 제민천에 방문하여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관찰하고, 봉황초 강당에서 각자 심의 장소는 무엇인지 토론하고, 아이들의 지선에서 제민천을 바라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사물을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기간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머무름을 유도할 수 있을지 틀을 잡을 수 있었다.

Concept
 제민천은 머무름의 이유가 부족한 공간이다. 우리는 이 공간을 편안한, 소통할 수 있는, 유대감을 쌓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바꾸어 사용자에게 머무름의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p>Site1. 자유롭게 쉬어간다</p> <p>다양한 자세로 각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평상을 모티브로 한 쉼터</p> <p>평상의 널찍한 형태를 두 개로 분리하고, 사이트를 나눠 놓는다는 느낌을 방지했다. 너무 딱딱한 직선의 느낌보다는 강의 물결과 유사한 곡선을 주로 사용.</p> <p>중간중간 조약 형태의 조형물을 배치함으로써 더 다양한 자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방부목 150T를 재단하여 결함 예정</p>	<p>Site2. 공간을 전환하다</p> <p>머무름기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 사용자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간</p> <p>빛과 그림자라는 요소를 사용해 사용자의 제민천과 공간의 '전환'을 유도. 사용자의 머무름의 모습이 기동 벽면에 비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연출하고자 하였다.</p> <p>머무르는 형태의 다양함과 그에 따른 그림자의 모습이 비치는, 공간의 변화가 제민천과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p> <p>보형석 기공, 제민천 반대편에 파도 조명 설치 예정</p>	<p>Site3. 흔적을 남기다</p> <p>사용자들이 직접 흔적을 남기고, 공간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치와 가구</p> <p>익숙한 공간에서 개개인의 스킵 지나가는 감성과 기억을 다시 깨는 새로운 머무름의 공간 제시.</p> <p>주민들이 남기는 흔적이 공간을 해치지 않도록 QR코드 장치를 사용했다.</p> <p>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문구를 통해 새기고, 기둥에 의자를 설치해 문구와 QR코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p> <p>물다리 부분은 보형석에 레이저 기공 예정 문구를 바라보는 의자는 유리섬유 에폭시 작업 후 미끄러, 방지 작업 예정</p>	<p>Site4. 함께, 소통하다</p> <p>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벤치</p> <p>소리의 파동 형태를 디자인해 유기적인 선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 각 파이프는 돌리었고, 굵이 나뉠 형태미기에 서로 소리를 전달 할 수 있다.</p> <p>빠르게 머무름 없이 스치러 지나가면 제민천 공간에서, 사용자의 소통이 이루어 진다.</p> <p>하여 삭막한 인간관계에서 정이 오고, 흐름 즉, 유동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p> <p>파이프 변형 후 방부목과 결합</p>
--	--	---	---

▲ 우수상 : 김다희, 최준현(공주대학교)

제민천 '방울썩기길'

BACKGROUND
 고요한 자연은 휴식,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방울썩기길은 고요한 자연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PROBLEM
 1. 방울썩기길의 공간이 너무 좁아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없다.
 2. 방울썩기길의 공간이 너무 좁아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없다.

DESIGN PROCESS
 1. 방울썩기길의 공간이 너무 좁아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없다.
 2. 방울썩기길의 공간이 너무 좁아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없다.

CURRENT STATUS
 방울썩기길의 공간이 너무 좁아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없다.

AROUND SITE
 방울썩기길의 공간이 너무 좁아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없다.

SITE INFORMATION
 방울썩기길의 공간이 너무 좁아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없다.

CONCEPT
 방울썩기길의 공간이 너무 좁아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없다.

▲ 우수상 : 김수연, 박인규(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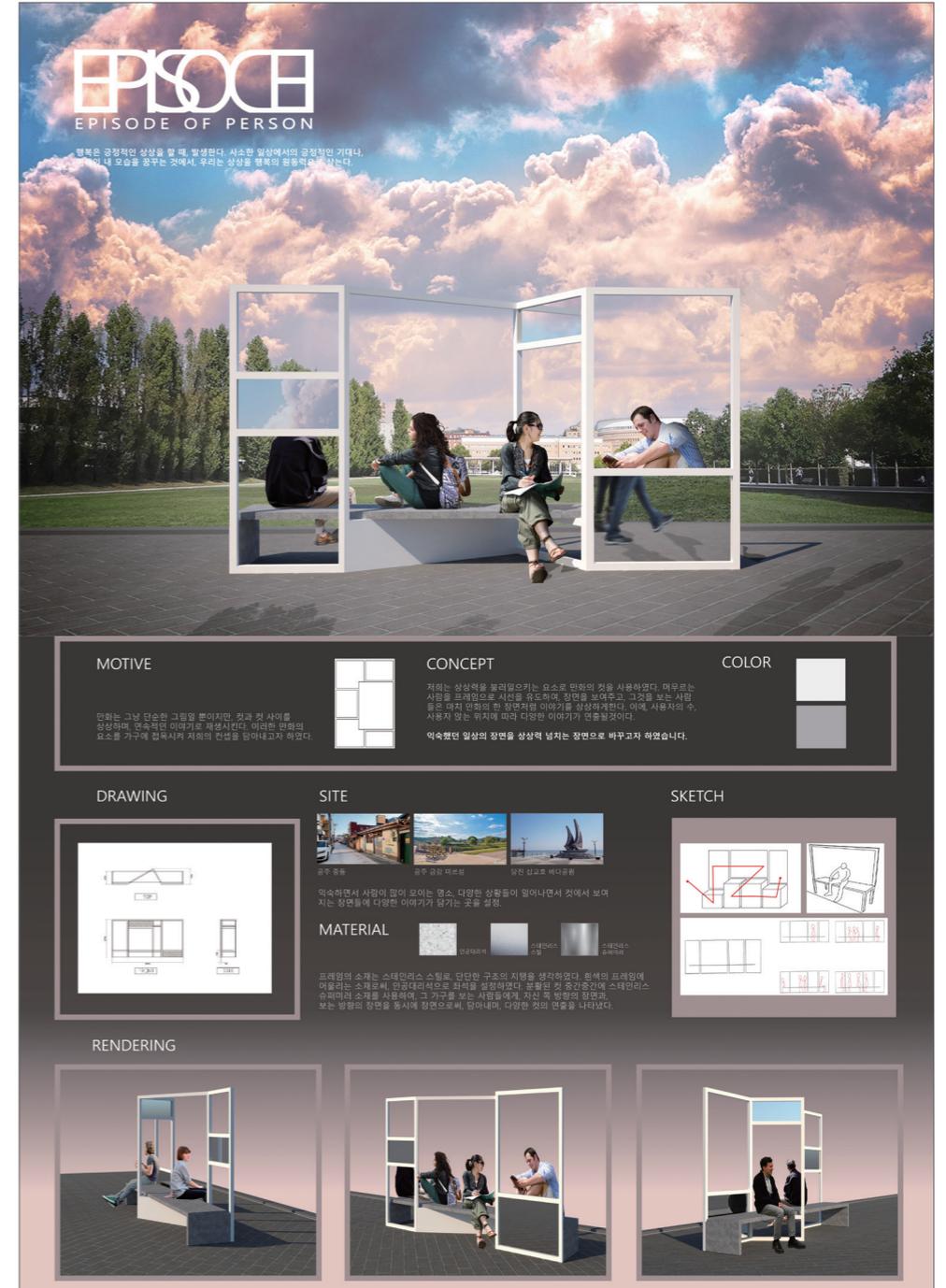
▲ 우수상: 임세현, 육가은(건양대학교)



▲ 장려상: 김성민(일반인)



▲ 장려상: 김재림, 이연희(백석대학교)



▲ 장려상: 백주용, 진성훈(공주대학교)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 작은 것(집)들이 쌓여 이루어진 공간, 행복한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
-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서 공통된 사적인 경험이 가능한 공간
- 개인의 소중한 기억들을 공유하는 공간

예술대학을 우리만의 동네로 바꾸기위한 시도

동네가구에서 느껴지는 편안하고 익숙한 경험을 예술대학 공간에 적용시킨다면 예술대학이 학생들만의 동네 로 느껴지는 순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동네의자들은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오는 의자들이 어색하면서도 흥미롭게 배치되어있다. 각자 떨어져있지만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또한 동네의자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의 공간 특성상 각자의 개성이 담겨있는 듯 하다.

동네의가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예술대학 의자에 담아본다면 동네에서 느끼는 편안하고 순간들을 제공할 수 있다. 각 과의 특징되는 요소들과 작업물하면서 자주 이루어지는 자세, 실기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자를 디자인에 담아본다면 익숙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들만의 동네로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가구리빙디자인학과
사색하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큰 작업에서 큰 테이블이 많이 사용된다.

세라믹디자인학과
날은 자세, 수그려 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 손을 앞으로 뻗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는 자세

영상학과
손을 모으고, 포크를 짚는 모습이 대부분 일어서 자세를 풀면서 앉는 모습 혹은 바에 기대서서 앉는 모습

무용학과
춤하는 자세가 다양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다. 연습실에서 자세로 많이 일어난다.

주일디자인학과
일어서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세팅한 작업 때문에 개인 조명 독립된 공간에서의 자세

게임디자인학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자세가 대부분이다. 장비를 활용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자주 일어난다.

인화예-메이선학과
관사선 태블릿에 손을 올린 뒤 작업 하는 모습이 자주 일어난다. 혹은 이빨에 일어서 드러나는 모습이 일어난다.

Design Concept
각 과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높낮이를 가구 직선에 적용시켜 디자인하였다. 또한 포인트가 되는 선의 요소로 각 과의 자세를 유도하거나 과의 특징들을 표현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연출하였다

< 놀일 장소 >
예술대학 1층 로비
예술대학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이 오가는 곳인 예술대학로비이다. 예술대학 1층로비에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모습들의 가구가 놓여진다면 예술대학 공간이 학생들만의 동네로 인식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장려상 : 안기현(공주대학교)

Frame a picture

기다림은 행복이다

size : 3200(w)x1600(dx)2000(h) mm

CONCEPT

기다림의 장소 - 공원

바쁜 일상 속에 존재하는,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장소

도심 속 공원엔 자연의 순결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형태와 같은 곳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 하고, 몰입이 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도심 속 공원이란 풍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함께 여유를 보내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주변에 따뜻함을 전해 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곧 찾아올 행복에 마음이 설렘 것이다. 그 마음이 우리 삶에 동행 했으면 한다.

DETAIL

기다리다.

concept sketch

의자에 앉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록 앉은 사람이 점점 보이게 구성하였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 기다리는 것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일상 속, 사리행에서 사는 우리

그 사리행이 감옥이 아닌, 행복한 아름다운 한 장면을 담은 역자의 모습

MATERIAL & COLOR

antiseptic wood	steel frame
super mirror	stainless steel

PLAN

TOPVIEW FRON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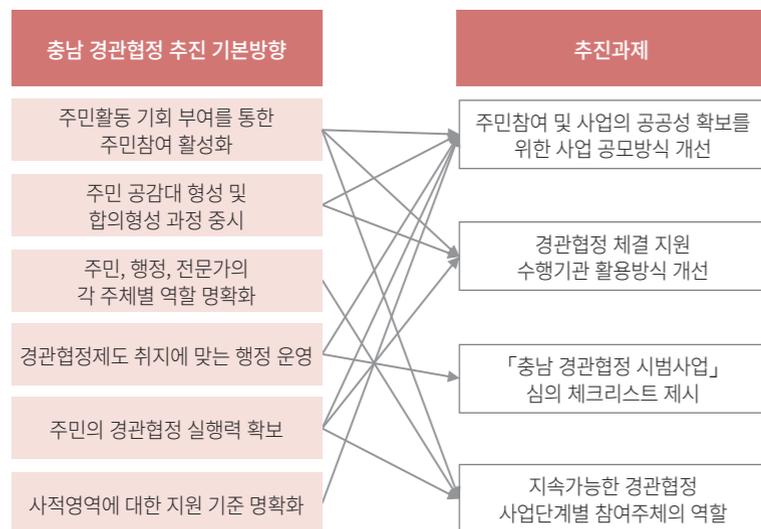
LOCATION

충청남도 도청 이리 산책로 공주시 금강 산관공원

▲ 장려상 : 이예찬, 장승태(공주대학교)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개선방안

충남에서 2020년 처음으로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 연구자가 참여, 관찰 및 분석함으로써 충남에서의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업 범위는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관협정 체결,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H/W사업이며, 본 연구는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H/W사업 구상 안 도출까지 연구범위로 하였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협정체결자인 주민, 사업 담당자인 행정, 사업 용역주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6가지의 충남 경관협정 추진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4가지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과제 내용으로 ①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절차, 사적영역 지원 기준 제시, ② 지속가능한 경관협정 운영을 위한 교육(안) 개발, 교육 수행기관 활용방식 제시, ③ 경관협정서 심의 체크리스트, 협정 체결 관련 사업 심의 체크리스트 제시, ④ 공모신청 및 선정단계/1차년도 사업 추진단계/2차년도 사업 및 사업완료 단계에서의 참여주체, 즉 주민, 행정, 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충남 경관협정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안) 제시

회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	방법	행정절차 및 사업관련	단계
1	· 경관협정제도 소개 · 우리마을 경관 소개하기(마을산책)	설명, 현장 둘러보기, 브레인스토밍, 발표	· 경관협정준비위원회 구성	유도
2	· 타 선진사례 습득	견학(또는 사업추진 경험자 초빙 강의 대체)		유도, 기획
3	· 경관 및 디자인 이론	마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강사 초빙		유도, 기획
4	· 경관활동 추진(마을청소, 꽃 심기 등)	실습/체험(전과 후 비교)		유도, 기획
5	· 공동체 활성화 이론 (갈등관리, 동아리 활동 등)	분야별 전문가 강사 초빙		유도, 기획
6	· 마을 경관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1	현장 둘러보기, 브레인스토밍, 토론, 발표 <전문가 자문 1>		유도, 기획
7	· 마을 경관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2	브레인스토밍, 토론, 발표, 합의형성		유도, 기획
8	· 소규모 경관사업	사업 추진		유도, 기획
9	· 중장기 마을 경관관리 방안 도출 1 (경관협정서 내용 구상)	토론, 발표 <전문가 자문 2>	· 마을 경관 마스터플랜 작성 · 경관협정서 작성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준비	기획, 체결
10	· 중장기 마을 경관관리 방안 도출 2 (경관협정서 내용 결정)	토론, 발표, 합의형성		
11	· 사업 우선순위 및 대상지 선정	토론, 합의형성 <전문가 자문 3>	· H/W사업계획서 작성	기획, 체결
12	· 경관협정서 내용 최종 결정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협정체결자 동의서 작성	합의형성	· 경관심의 준비	체결

*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협정 체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교육 내용 구성

* '타 선진사례 습득'은 홍성군 사례(코로나19 확산)와 같이 대외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현장견학이 어려울 경우 선진사례 사업추진 경험자(사무장, 추진위원장 등)를 초빙하여 강의로 대체

* 이론교육은 교육을 추진하는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특화 방향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 소규모 경관사업은 6, 7회차 교육에서 도출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

2014~2021 연구성과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개선방안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방안 충청남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방안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현안과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농촌마을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조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충청남도 관광안내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현안과제] 충청남도 정책홍보 방안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방안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방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전략과제]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방안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공사용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경관,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전략과제]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

충청남도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설명회'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디자인 컨설팅 지원」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디자인 컨설팅이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사업내용에 따라 건축, 조경, 디자인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사업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주시(11월 11일), 홍성군(11월 23일), 서천군(12월 8일)의 3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비롯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오병찬 센터장은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범위,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공공디자인의 관계, 디자인 컨설팅 제도의 역할과 활용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독려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군 대상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담당자들의 디자인 인식 향상과 디자인 컨설팅 활용 활성화를 통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11월 11일(목), 공주시



▼ 11월 23일(화), 홍성군



▼ 12월 8일(수), 서천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워크숍(1, 2차)’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는 2021년 8월 26일(목)과 8월 27일(금) 양일간 센터 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2년도 센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디자인 관련 국비 공모사업 지원’, 2020년도 6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효율화 방안, 그리고 충남 디자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센터 정책사업 및 연구 도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차 워크숍은 조경, 도시, 농어촌 디자인(공간/산업/시각 등)분야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활성화 위한 디자인 지원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디자인 관련 국비 공모사업 지원에 관련해서는 ① 15개 시·군 현황 파악을 통한 지원 대상 사업 선별이 우선 선행될 필요, ② 국비 공모 제안 준비단계부터 센터-자문위원-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이 외에도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사업구상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전 단계에서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 자문위원들의 전문분야 간 연계를 통한 충청남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2차 워크숍은 건축 분야 자문위원 대상으로 ‘공공건축 지원 업무와 자문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① 공공건축 기획업무에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기획의 질을 높이는 방안 모색, ②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필요한 관련 법령 등을 사전에 자문위원들에게 공유, ③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심의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성 등 논의되었다.

한편, 센터는 2022년에도 충청남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자문위원 워크숍(1차) 조경, 도시, 농어촌디자인(공간/산업/시각) ▼ 자문위원 워크숍(2차) 공공건축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충청남도 공공건축 관계공무원 교육’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2021년 12월 16일(목),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 관계 공무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공공건축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건축 사업기획의 개념, 설계공모 방식, 공공건축심의 등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제도와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엄운진 부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의 ‘공공건축 설계 공모 제도 이해’, 강경연 책임연구원(공공디자인센터)의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사전검토의 이해’, 백상엽 팀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의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의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2021 워크숍’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2021년 12월 14일(화),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충남연구원의 관련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최훈 도의원¹⁾을 비롯하여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3인)²⁾과 시·군 담당자(2인)³⁾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고, 이어 충남연구원 유동훈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행사 1부에서는 최훈 도의원(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이해’라는 주제로 중앙부처의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등을 충청남도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가져가야 할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사 2부는 오병찬 센터장(공공디자인센터)의 ‘2022년도 공공사업 컨설팅 지원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오병찬 센터장은 시·군 자체 추진사업을 제외한 국·도비 사업들 중 공공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은 약 990개로, 대부분의 부서 사업들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언급하며 이들 사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업 성과물의 디자인 품질 확보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담당자들이 디자인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2부의 두 번째로 박혜은 책임연구원(공공디자인센터)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추진체계 개선방향’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박혜은 책임연구원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실행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유형 개선,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충청남도 디자인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신 팀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은 ‘경관 공공디자인 심의도서’라는 주제로 경관심의의 운영지침과 안내사항을 전달하며, 심의의 효율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15개 시·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 이시영 교수(배재대학교 조경학과), 임선희 수석디자이너(LG생활건강 디자인센터), 정용진 교수(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 김용선(금산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임종구(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국내 정책동향

072 중앙부처
078 광역지방자치단체
093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중앙부처

건축 및 도시

국토교통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지 5곳 선정

2021. 06. 03.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국토교통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2021년에는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약 200여 가구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2021. 07. 05.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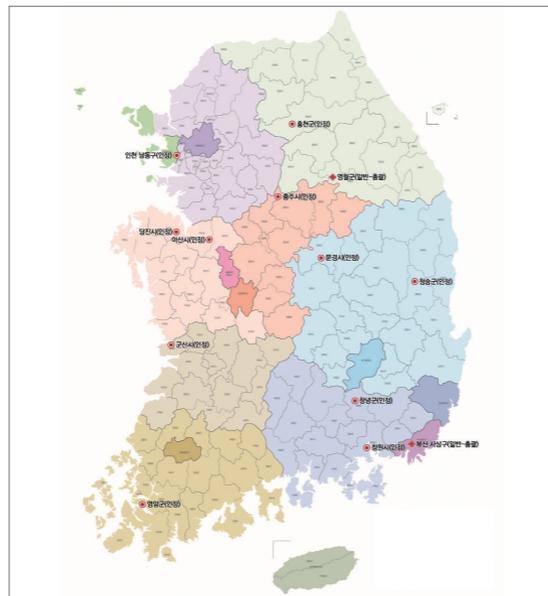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을 공모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에는 국비를 투입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 수립 및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용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 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2021년도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2021. 07. 08.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 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 창원, 충남 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의 생활SOC와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 지원 시설 등이 공급되며,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2021년도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공모

2021. 08. 10.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오래된 청사 등 공공건축물을 공공·편의를 위해 복합개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도 제7차 선도사업에서는 신청한 사업의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교육 사례집과 교육교재 발간

2021. 09. 02.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교육의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교육 사례집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교육 성과와 프로그램 12건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① 서울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전문가 교육), ②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주민교육), ③ 세종 조치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주민교육) 등 이다.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우수 스마트도시 인증

2021. 09. 10.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하였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 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도 구축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된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국토교통부,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 발표

2021. 09. 12.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를 발표

하였다. 주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 준공 부문]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의 '지속가능한 도서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정사업본부의 '여의도 포스트타워'가 환경부 장관상, 엘지전자주식회사의 'LG ThinQ Home'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 선정되었다. [대국민 아이디어 부문] 일반인 박성진 씨가 제출한 '자동차가 없는 아파트'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선정되었다.

▼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준공부문 수상작 4점



국토교통부, 2021년 2차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021. 09. 30.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차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고강동 일대 지역자산을 연계한 거점 복지 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② 강원도 인제군 : 인제군 기린면 일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거점 복지 공간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③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청천면 일대에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돌봄센터의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1. 10. 14.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② 위대한 빈집 방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③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마련이다.

국토교통부, 에너지 줄이고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2020. 11. 01.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 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Zero Energy Building)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2021. 11. 03.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대상 :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

해 지정, ② 지정 절차 :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③ 적용예시 :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구체적인 활용 방안 예시 등이다.

국토교통부, 전국 스마트화 시동,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2021. 11. 08.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올해의 한옥대상, 자연과 조화롭고 독창적인 ‘하동 한옥문화관’

2021. 11. 24.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하동 한옥문화관’을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했다. ‘하동 한옥문화관’은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이 결합된 숙박시설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부 공간 및 구조 등을 독창적으로 잘 풀어냈다. 아울러, 계획 부문에서는 ‘상상루’가, 사진 부문에서는 ‘소나기와 고택’이, 영상 부문은 ‘한옥으로’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준공부문 (한옥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계획부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청북도 충주시·충청남도 아산시 선정

2021. 06. 06.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청북도 충주시와 충청남도 아산시를 선정하였다. 충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온천수 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문화관광 힐링 프로그램과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

화 경관 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검증과 온천 이용에 따른 건강 상태 조사, 온양행궁(溫陽行宮) 역사 집대성 및 디자인상품 개발, 온천 산업박람회 개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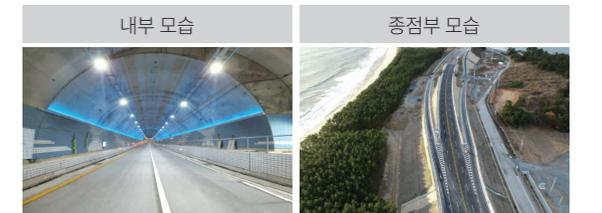
경관 및 공공공간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보령시 해저터널 개통

2021. 11. 24. | 국토교통부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과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 보령-태안 간 도로 건설 공사로 보령 해저터널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 해저터널은 국내 시공기술로 완성된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이다. 대천항과 원산도 양방향에서 각각 굴착을 시작하여 바다 한가운데서 관통을 완료하고 이후 터널 내부의 구조물과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였다.

▼ 보령 해저터널 내부 및 종점부 모습



산림청,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2021. 06. 07.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시행한다. 「도시숲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와 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과 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이다.

▼부산광역시 가로수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차단숲



산림청,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도시숲 최우수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 선정

2021. 09. 29.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산림청은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로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바람길숲' 등 6개소를 선정하였다. 수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도시숲 부문] 최우수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 우수 '전남 순천 동천변 그린웨이', [가로수 부문] 최우수 '서울 세종대로 사람숲길', 우수 '전남 신안 팽나무 명품가로수길',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최우수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우수 '경북 포항 해도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바람길숲



행정안전부, 2021년 아름다운화장실 27개소 선정

2021. 10. 28.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제23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1년도 대통령상에 'SRT 수서역 여객 화장실'을 선정했다. 국무총리상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화나래휴게소'를,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전라남도 무안군청 '오룡중앙공원' 등 15개소를, 특별상은 '하남풍산역 화장실' 등 10개소를 선정했다.

마을만들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사례집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발간

2021. 07. 16.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영량과

국토교통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7개 팀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를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은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이 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었다. 2020년 17개 팀의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지난 4년간 추진하였던 주민역량강화사업의 통계 등 관련 정보와 2019년에 참여했던 3개 팀의 활동 현황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행정안전부,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 '마을관리소' 생긴다.

2021. 06. 07.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 '마을관리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마을관리소는 주민과 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을회관이 주민의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와 공구 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 지역예술가와 협업하고 친환경제품 생산한 '모두애마을기업' 5곳 선정

2021. 09. 29.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제품 생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예술인과 협업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마을기업 5곳을 '모두애마을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한 '모두애마을기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마을기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2021년에 선정된 '모두애마을기업'은 목화송이 협동조합(서울 도봉구), 레인메이커 협동조합(대구 중구),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인천 남동구),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전남 영광군),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마을(경북 포항시) 등 5개소이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우리마을 주민자치 이야기」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모음 발간

2021. 10. 24. | 행정안전부 | 홍보담당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선별하여 「우리마을 주민자치 이야기」라는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협력·협치 및 행정혁신 사례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킨 사례들이 담겨져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 '제주소통협력공간' 문 열어

2021. 10. 27. | 행정안전부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 공간기획 방식으로 추진해온 제주소통협력공간이 새 단장을 마치고 개관한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질문도서관, 옛 은행 금고를 활용한 아카이브실, 어린이친화공간, 카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공간은 운영구상과 주민참여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세부 공간의 쓰임새를 명확히 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이로써, 외관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와 실제 운영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공간이 되었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국토교통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설명서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2021. 09. 02.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설명서」를 마련하여 배포한다. 이 설명서에는 시설물의 붕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케이블, 바닥 판과 같은 주요 부자재 점검 방법과 기준, 그리고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게 사진과 체크리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출렁다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CCTV, 안내판, 풍향풍속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전거로 지역 특성 살리고, 안전하게 달린다.

2021. 06. 14.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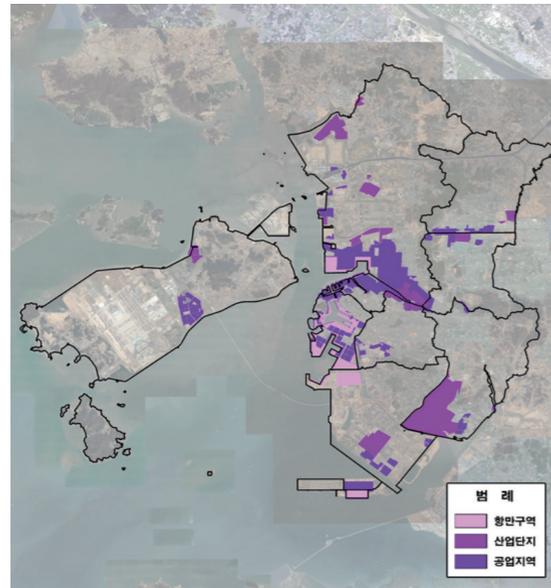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으로 1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한다. 자전거 공모사업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먼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전거 정책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은 자전거도로의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10곳의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15개 지자체는 자전거도로 보차도 분리, 단절 구간 연결, 요철 및 파손 정비, 안전시설 보강 등 자전거도로의 안전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나선다.

2021.08.01. | 인천광역시 | 시설계획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내 산업·인구·건축물·토지이용·기반 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을 조사해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과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이에 따른 후보지를 발굴하는 것이다.

▼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분포도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제1호 탄생, 송학동 옛 시장 관사

2021.08.08. | 인천광역시 | 문화유산과

인천광역시는 ‘송학동 옛 시장관사’ 외 3건을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1호에서 4호로 등록 고시했다. 시는 사·도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 이후 인천의 역사성, 상징성, 정체성을 대표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관계전문가의 현지 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수행했으며 이번에 4건의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를 등록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빈틈없이 점검

2021.10.07.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2021년도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중간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 장승백이 시장 활성화 사업,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인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다. 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안심거리 조성, 방범창 설치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관계기관(경찰청-민간협의체)과 함께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은 어디?

2021.11.03. | 인천광역시 | 산업진흥과

인천광역시는 ‘2021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수상 선정된 기업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상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시는 올해 수상 기업을 산업시설 탐방길 ‘인스로드(InsRoad)’를 통해 홍보하고 구인 활동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안심창조밸리 조성’

2021.07.06.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연근재배단지 일원이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안심창조밸리로 조성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안심창조밸리 조성의 세부 사업은 ① 금강역 레일카페 조성, ② 연꽃축제 개최, ③ 생태로드 및 데크길 설치(가남지, 금호강, 점새늪), ④ 연생태관, 연 갤러리 조성, ⑤ 커뮤니티쉼터 조성(안심역, 신서타운거리) 등이다. 시는 안심역과 신서타운 거리에 만남의 광장 및 쌈지공원을 조성해 주민 소통 향상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 안심창조밸리 사업계획도



대구광역시, 퍼포먼스 통해 도시재생 주요 사업지 홍보

2021.08.10.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는 도시재생 주요 사업지를 배경으로 지역 청년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 영상을 제작해 도시재생을 홍보한다. 영상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음악에 맞춰 신나는 스트리트 댄스와 함께 비산동, 대명동, 침산동, 불로동 등 대구광역시의 도시재생 주요 장소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 퍼포먼스 영상 모습



대구광역시, 중앙도서관의 창조적 공간 변신,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2021.09.03. | 대구광역시 |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는 현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은 기존 중앙도서관의 활용도 낮은 유휴공간을 찾아 국채보상운동 체험관, 시민커뮤니티실, 수장고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형태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투시도



대구광역시, 2022년 개발제한구역 시민 여가 공간 조성 추진

2021.09.08. | 대구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3곳이 시민들의 여가와 자연환경·생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난다. 해당 대상지는 동구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 달서구 ‘수밭고개 옛길 복원사업’, 달성군 ‘화원명곡 산림욕장 여가복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도시 주변의 녹지축 복원으로 걷기 좋은 길과 여가 복지공간이 조성돼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설치 확대로 시민 안전 확보

2021.09.15. | 대구광역시 |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구군까지 확대해 건축물 전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안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건축행정 업무 중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한다.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전 생애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립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활력 있는 도시에 한 걸음 더

2021.09.30. | 대구광역시 |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 먼저 ‘지켜온 천년, 만들어 갈 백년 불로고분마을’ 사업은 불로동고분군, 불로전통시장, 불로막걸리, 불로화훼단지 등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마을 창업을 통해 청년층을 유입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쾌적하고 행복한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으로 ‘기억해요! 열차촌, 정다운 평리들마을’ 사업은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들마을 녹색 동네를 주민이 만들어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열차촌(쪽방촌)을 기억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 국동구 불로동 ‘지켜온 천년, 만들어 갈 백년 불로고분마을’



▼ 서구 평리1동 ‘기억해요! 열차촌, 정다운 평리들마을’



대구광역시, 2021년 건축행정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21.10.22. | 대구광역시 |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가 ‘2021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1위)에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분야 중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및 처리 만족도, 건축물 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광주역, 광주송정역, 상무지구 일원 광주 도시재생 및 혁신의 새로운 선도거점으로 거듭

2021.07.11.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교통정책과, 도시계획과

광주역, 광주송정역, 상무지구 일원이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혁신의 새로운 선도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투자선도지구, 도심융합특구 선도도시 등의 개발 방식을 확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는 공사에 착수하는 등 실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 계획 수립,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3년 토지 보상,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2021년 ‘도시기억프로젝트’ 사업 완료

2021.08.02. | 대전광역시 | 문화유산과

대전광역시가 ‘도시기억프로젝트’ 2021년도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2021년도 도시기억프로젝트를 통해 영구 기록물로 남는 건축물은 대전 중구 선화동의 ‘옛 대전법원관사’와 대흥동의 ‘좋은부동산 건물’이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옛 대전부청사’, ‘옛 정동교회’, ‘중앙시장 해방촌’ 등 근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기록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 ‘옛 대전법원관사’와 입면도(위), 대흥동 ‘좋은 부동산 건물’과 입면도(아래)



대전광역시, 국가 인정 우수 스마트도시 2회 연속 선정

2021.09.13. | 대전광역시 | 스마트시티과

대전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사업에서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인증서와 동판을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및 출연연과 협력하여 스마트 기술을 도시 문제해결에 활용하고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울산 첫 ‘스마트 도시’ 조성 완료

2021.08.30. | 울산광역시 | 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는 ‘스마트 도시 선도지구 조성’의 첫 사업지 ‘북구 송정 택지개발지구’ 공사를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차량호

름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 효율형 서비스’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공공안전, 정보통신 복지 강화 등의 ‘시민편익형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교통,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스마트 도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기반 시설 관리 등의 사회적 비용은 30% 이상 절감되고 도시생산성은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에 조성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울산광역시, ‘3차원 경관심의 기술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2021.09.23.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울산광역시가 ‘3차원 경관심의 우수기술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어, ‘3차원 공간 정보 플랫폼 기술’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술은 3차원 경관심의 시스템(솔루션) ‘빌드잇’으로, 앞으로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시 ‘빌드잇’을 시범 적용하여 3차원 경관심의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검증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경관 행정을 더욱 전문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 및 공공공간

서울특별시-HSBC은행, 훼손된 녹지에 ‘도시숲’ 조성해 기후 위기 대응

2021. 06. 09. | 서울특별시 |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특별시가 ‘도시숲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다. 서울특별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HSBC(홍콩상하이)은행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사)생명외수업은 사업 실행, 설계, 공사 등 도시숲 조성 사업을 총괄한다. 세 기관은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유지관리, 사업의 홍보 및 환경 개선 효과 증진, 시민 참여 등 녹색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지역 특성 살려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대상지 5곳 선정

2021.07.26.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특별시가 역사·문화적 가치나 지역 활성화 요소를 품고 있음에도 소외·낙후되어 있는 주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하는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 선정된 5개소는 ① 금천구 시흥행궁 주변, ②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 ③ 종로구 자하문로 일대, ④ 도봉구 창동 골목시장 주변, ⑤ 강동구 진항도로다.

서울특별시, 일상의 심포가 된 정원 발굴, ‘2021 푸른 도시 서울상’ 30팀 시상

2021.11.12. | 서울특별시 |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특별시는 ‘2021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총 30팀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2021년에는 심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소통하게 된 사람들, 동네 주민들을 위해 버려진 공터에 가드닝을 하며 재능을 기부한 주민들, 회색빛 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함께 가꾼 사례를 발굴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2021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대상



부산광역시,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2021.07.14. | 부산광역시 | 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구역 제1종은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은 주거지역,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대상 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 허가 대상 광고물,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 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부산광역시, 저탄소 그린 도시에 ‘성큼’... 도시바람길숲 조성

2021.08.19. | 부산광역시 | 산림복지과

부산광역시는 사하구 하신중앙로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했다. 이번 도시바람길숲은 통학로 200m 구간에 조성되면서 통학로 주변 소규모 생활권에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양한 조경기법을 도입해 화단을 조성하고, 통행로 바닥에는 그림을 그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벽면은 그림 전시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가는 길’을 주제로 한 조명을 설치해 아이들이 야간에도 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 도시바람길숲 조성 후



부산광역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

2021.10.18. | 부산광역시 | 교육협력과

부산광역시는 2030년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총 50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차로 15분 거리의 거점형, 걸어서 15분 거리의 생활밀착형으로 각각 조성된다. 시청 1층에 조성 추진 중인 열린 도서관의 기능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거점형은 대규모로 16개소, 생활밀착형은 지역 중심 공간으로 62개소의 중규모와 422개소의 소규모로 나누어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명칭은 ‘들락날락’으로 선정됐고, 선정된 명칭은 공간 조성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개항의 상징적 서사 공간 ‘제물포구락부’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2021.07.14. | 인천광역시 | 문화유산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락부가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제물포구락부는 기존의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원형을 복원하고 시설을 재단장하여 인천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는 골목, 동네, 마을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인천광역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이다.

▼ 제물포구락부



인천광역시 경관행정, 대한민국 최고 우수기관 평가

2021.07.15.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부문에서 ‘인천 도서 지역 경관 형성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풍경佳島(風景佳島) 168의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인천광역시 도서 지역 168개 섬에 대한 경관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점, 경관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서 지역에 대해 경관 형성 사업과 경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점이 타 지자체에 수범이 되는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 백령도 두무진 포구와 해안절경



인천광역시, 송학동 옛 시장관사 및 소금창고 부지 ‘역사산책 상징 공간’으로 조성

2021.09.30. | 인천광역시 | 재생콘텐츠과

인천광역시는 옛 시장관사 및 소금창고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인천광역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하여, 개항장 역사문화도시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지역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 안에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중구 송학동1가 2-2번지와 8-4번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새로 결정하였다.

인천광역시, 100년 넘는 인천세관 창고, 역사 담은 공원으로 '재탄생'

2021.11.16. | 인천광역시 | 재생콘텐츠과

인천광역시 옛 세관창고 부지에 '인천세관 역사공원'이 조성됐다. 이번에 조성된 인천세관 역사공원에는 인천세관 역사관, 인천광역시·세관 상징조형물, 잔디광장, 옛 세관창고를 본뜬 포토존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 인천세관 역사공원



인천광역시, “주민들과의 적극 소통 통한 송도 공원 정비...눈에 띄네”

2021.11.23. | 인천광역시 | 환경녹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솔찬공원 케이슨제작장 주변, 센트럴파크, 달빛공원, 해돋이공원 등 6곳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공원과 관련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대화와 현장 확인으로 풀어나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민들과의 소통에 의한 정비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 솔찬공원 케이슨제작장 주변 정비 사진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특목

2021.06.08.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는 수성구 황금동 유흥가 일대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범죄 발생을 감소시켰다. 황금동 생활안전 디자인사업은 동네 브랜드 개발, 순찰 집중구역 안내사인, 통합형 안전 시설물, CCTV 및 보안등 공동현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러시트, 귀갓길 여성 대상 범죄 예방시스템 등 지역 특화 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 순찰 집중구역 안내 사인



대구광역시, 근대건축물 무영당, 민-관-공 거버넌스가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

2021.07.01.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 협업, 유휴공간 활용 대구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들은 2021년 2월부터 본 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행정과 공공기관, 민간중심 플랫폼이 사업추진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매년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장기 협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2021년 1차 사업

은 중요 근대건축물인 '무영당'과 '대지바'가 대상이다.

대구광역시, '빛 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을 위한 빛 환경 관리계획 마련

2021.08.04. | 대구광역시 | 환경정책과

대구광역시는 빛 환경 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2023년까지 인공조명 밝기기준 초과율 32% 감축'과 '불필요한 빛 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이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실태에 맞는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친환경적 조명설계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조명기구 종류별 빛 공해 방지 설치·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범어도서관 남측 공지에 '컬러풀 광장' 조성

2021.08.12.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는 '컬러풀 대구'를 상징하는 역동적인 공간 '컬러풀 광장'을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남측 공지에 조성했다. 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의 보행 동선과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식재 및 디자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적용한 조형 벤치와 조각물을 형상화한 페블 벤치를 설치하고 회화나무와 황금사철을 심어, 범어도서관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바닥 포장은 투수 블록 마감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도 추가로 설치해 기능적으로도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 컬러풀 광장



대구광역시, 버려진 공간이 도시농업을 통해 '우리동네 작은 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2021.10.20. | 대구광역시 | 대구시설공단

대구광역시는 구·군별로 추천받은 유휴공간과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폐공간 8개소를 인근 주민이 함께 가꿀 수 있는 동네 정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장소별 특색을 살려 사계절 관상이 가능한 나무와 공기정화식물,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을 심고, 페타이어 등 재활용 소품을 활용해 다채롭게 꾸몄다. 동네 정원은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한 쓰레기 투기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 식물을 통한 탄소 저감, 정원 속 반려 식물 가꾸기를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광역시, 동네정원으로 탈바꿈한 유휴공간



대전광역시,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2021.06.04. | 대전광역시 | 기후환경정책과

대전광역시는 전 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제1종~제4종으로 구분하여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역을 지정 고시하고 시행한다. 대전광역시는 2020년에 실시

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빛 공해 발생률이 46.3%로 나타나, 빛 공해 방지대책의 하나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대전광역시도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 환경 관리를 통하여 빛 공해 발생률을 30%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고속도로 IC 관문 경관 개선사업 추진

2021.08.23.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톨게이트 리모델링 등 고속도로 진입 관문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톨게이트 캐노피 디자인은 “대전, 자연을 연결하다”라는 개념으로 대전 진입 시 보이는 산을 중첩된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산이 주는 경쾌한 에너지와 과학도시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대전 IC는 계족산과 식장산의 실루엣, 유성IC는 갑하산, 계룡산의 실루엣으로 톨게이트 캐노피 구조물을 디자인했다.

▼ 톨게이트 캐노피 디자인



대전



유성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도시공사와 범죄예방 환경 개선 첫걸음 내딛다.

2021.08.30. | 대전광역시 | 자치경찰위원회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환경 개선 필요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합동 진단을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경찰청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취약지역에 대해 범죄 발생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디자인을 개발하여 도시공사에 제시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놀이터를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 주변에 낮

은 나무를 심어 시야 확보, CCTV와 가로등 설치, 침침한 수은 등이나 나트륨등을 밝은 LED등으로 교체, 주택 가스 배관을 사람이 오를 수 없게 디자인하는 등 범죄예방에 필요한 환경 개선을 하게 된다.

울산광역시, “도색 디자인 무료로 지원받자”

2021.07.02.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울산광역시는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부터 관내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300세대 미만)과 공장(기업체)은 도장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된 대상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디자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환경, 브랜드 분석 등을 통해 색채디자인을 연구·개발하여 시공할 수 있는 설계 도안을 제안한다.

울산광역시 ‘상아소공원’ 정원 분야 전국 대상 수상

2021.09.23. | 울산광역시 | 생태정원과

울산광역시 남구 ‘상아소공원’이 ‘2021년 정원드림 프로젝트 공모사업’ 정원 분야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됐다. 상아소공원은 우리가 지향하는 울산의 모습을 4개의 계단에 다채롭고 풍성한 시퀀스를 즐길 수 있게 꾸며졌다. 특히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생태 정원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식물의 천이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풀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상아소공원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최우수’ 선정

2021.10.01. | 울산광역시 | 녹지공원과

울산광역시가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산미포지구 미세먼지 차단숲’은 북구 연암동 일원의 완충녹지로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해송, 가시나무, 느티나무 등 총 44종류 9만 그루가 식재되어있다. 이번 공모 심사에서는 도시숲의 질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목 도입 및 생물다양성 확보, 도시숲 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임시 저류지 설치, 곤충과 조류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물 식재, 주변 여건을 고려한 산책로 조성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미포지구 미세먼지 차단숲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우수상’ 수상

2021.10.20.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울산광역시의 ‘태화강국가정원’이 ‘2021 세계조경가협회상’의 우수상(Awards of Excellence)을 받았다. 태화강국가정원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이룬 생태 복원과 노력, 그리고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 국가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생태·문화적 경관 향상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을만들기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밀집 지역 심야 골목 순찰 ‘안심마을 보안관’ 시범사업

2021.10.25. | 서울특별시 | 관광체육국 지역관광팀, 서울관광재단 시민관광팀

서울 시내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노란색 제복을 입은 60명의 ‘안심마을 보안관’이 심야 시간 동네 골목 곳곳을 누비며 위급상황이 일어나진 않는지, 범죄가 발생하진 않는지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을 시작한다. ‘안심마을 보안관’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 순찰, 생활안전대응 크게 두 가지다. 서울특별시는 ‘안심마을 보안관’ 활동 시 노란색의 자체 제복을 입게 하고 제복 뒷면에 야광 열처리한 한 ‘안심마을 보안관’ 마크를 달아 한눈에 식별 가능하도록 했다.

▼ 안심마을 보안관 비 및 복장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형 마을정원사, 동산마을 마을 정원 조성

2021.06.24. | 부산광역시 | 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도시재생형 마을정원사 교육’의 하나로 동래구 기차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에 마을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번 동산마을 마을 정원은 로즈마리·라벤더·애플민트 등 허브의 향기로움과 라일락·수국·장미·단정화꽃의 아름다움, 마삭줄과 은썩·세덤·동굴레의 다채로운 색을 즐길 수 있도록 10여 종의 정원식물로 꾸며졌다. 마을 정원사 교육생들은 정원 디자인부터 식물 선정, 식재까지 전반적인 실습 과정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정원을 완성하였다.

▼ 도시재생형 마을정원사 교육과정 마을정원 조성모습



부산광역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마을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2021.07.22. | 부산광역시 |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광역시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사업으로 ‘마을 영화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화의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을 영화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에게 영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부터 촬영, 편집, 연기 등 영화 제작의 전 과정에 마을주민이 주도적인 역할로 함께하게 된다.

인천광역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2021.07.22. | 인천광역시 |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상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주관으로 추진됐다.

▼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프로젝트



인천광역시, 시민과 ‘화기애애’ 꽃피는 인천 만든다.

2021.10.21. | 인천광역시 | 녹지정책과

인천광역시는 생활환경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화기애애 꽃 피는 인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상지 선정부터 꽃 가꾸기 등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으로 은행나무 잎 모양의 플랜터, 벤치, 화단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꽃을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되어 마을 풍경이 많이 변화됐다.

▼ 화기애애 사업 전경



광주광역시, ‘아름다운 마을 지원사업’ 대상 10곳 선정

2021.07.22. | 광주광역시 | 자치행정과

광주광역시는 ‘아름다운 마을 지원사업’ 대상 마을 10곳을 선정했다. 대상 마을은 지난 2년간 주민참여 활동 실적과 사업 계획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심사, 최종 결정했다. 선정된 10개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에 맞춰 2021년 말까지 기준에 조성된 벽화, 화단, 분수대 등 다양한 마을시설을 보수하고 재정비한다.

광주광역시,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21.09.30.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이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경양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화합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지역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 활용한 재생 사업추진 가능 지역이며, 거점시설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대전광역시, 마을 사람 누구나 함께 어울려요, 삼성동 ‘어울림’ 개소

2021.06.24. | 대전광역시 | 지역공동체과

대전광역시는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사랑방인 ‘어울림’ 시민 공유 공간을 개소했다. 삼성동 ‘어울림’은 민관협치 공간으로 공동육아와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등 마을 돌봄 지원 공간, 주민 소규모 모임 등을 위한 주민 쉼터,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의 이용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마을 공론장으로 계획되었다.

울산광역시, “주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마을사업 첫 삽 뜨다”

2021.09.03. | 울산광역시 | 사회혁신담당관

울산광역시가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의 문제와 주민 수요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자발적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4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3년간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광역시, 마을매체(미디어)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2021.09.24. | 울산광역시 | 사회혁신담당관

울산광역시의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매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종 공포·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매체(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매체(미디어) 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매체(미디어) 지원센터 설치 운영, 마을공동체 제작 우수 콘텐츠 활용 등이다. ‘마을공동체 매체(미디어)’란 주민 스스로 지역과 마을을 소재로 제작하는 영상, 음성, 인쇄물 등을 뜻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매체(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성이 강화되는 등의 순기능이 나타난다. 울산광역시는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6번째로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2건 수상

2021.11.25. | 울산광역시 | 사회혁신담당관

울산광역시가 ‘2021년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이번 공모에 3건의 사례를 신청하였고, 현장 활동 분야에서는 울주군 상북면 마을계획단의 ‘모두 다 꽃’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미디어 활동 분야에서 북구 농소1동의 ‘호계마을 다함께 마을방송’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수상하였다. 울주군 상북면의 ‘모두 다 꽃’은 산악관광 활성화로 인해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주차난 등 마을의 문제가 지속되자 주민들이 직접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례이며, 북구 농소1동의 ‘호계마을 다함께 마을방송’은 주민자치회 사무실 옆 창고를 미디어방송 제작실로 조성하여 마을의 다양한 소식, 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서울특별시, 화장실·매점... 한강공원 218개 편의시설 ‘스마트서울맵’으로 한눈에

2021. 10. 29. | 서울특별시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서울특별시가 한강공원 전역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 위치와 이용정보를 서울특별시 온라인 지도플랫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서울맵에 들어간 뒤 메인화면의 ‘도시생활지도’ 목록에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민간 지도플랫폼에 한강공원 편의시설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반영하는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스마트서울맵 메인화면



인천광역시, 생활안전 분야 표준디자인 개발 나선다.

2021. 06. 17.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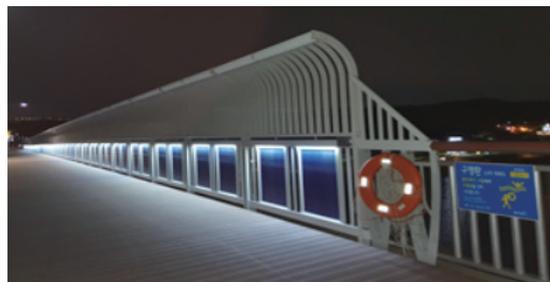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8차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생활안전 분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국내 공공시설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디자인을 발굴·보급하는 ‘제 3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로 선정한 생활안전 분야 표준디자인 개발 대상은 흡연부스,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사장 가림막에 대한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자살 예방 노력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21. 09. 14. | 인천광역시 |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의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태양광 융합형 자살 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자살위험 환경 개선의 하나로 시행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 투신 자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시천교 구간의 난간 높이를 높이는 한편, 난간 상부를 안쪽으로 휘게 만들고 최상부에는 회전 롤러를 설치해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자살위험을 줄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태양광 융합형으로 설치됐다. 태양광 모듈은 인천 바다색, 정서진 석양색 등 인천색(Color)을 활용해 자살 예방과 친환경, 경관까지의 기능을 모두 확보했다.

▼시천교 자살 예방 안전난간



인천광역시, 전역 ‘1만6천여 대 CCTV’ 시민 안전 지킨다.

2021. 09. 30. | 인천광역시 |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천광역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제 인천시 어디서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112 치안 종합상황실, 119 종합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현장 출동 요원에게 상황 발생지점 인근의 CCTV 영상이 실시간 공유된다.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히,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 감지 센서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시장 내 CCTV 영상이 119 종합상황실로 표출되도록 하는 전통시장 화재경보 연계 서비스를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에 시범 설치했다.

대구광역시, ‘2021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 최우수상 수상

2021. 10. 25.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2021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 등 3개 작품에 대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비엔비광고사’의 ‘반딧불이 서재’가 국무총리상을, ‘날으는 꿈’의 ‘소소루’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디올디자인’의 ‘조선드라이크리닝’은 은상을 수상하였다.

▼국무총리상 - 반딧불이 서재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건축 및 도시

천안시,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텃밭으로 재탄생!

2021.06.11.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0년 말 철거가 필요하고 사업 후 마을 주민 활용도가 있는 빈집 1동을 선정했고, 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텃밭)로 제공하겠다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방치됐던 빈집을 정비해 텃밭으로 재탄생시켰다.

천안시, 공공건축가 제도 본격 시행

2021.06.14.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는 제1기 천안시 총괄 및 공공건축가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초대 총괄건축가를 위촉했다.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지역의 건축 정책을 총괄한다. 천안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기본전략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건축과 공간환경 조성사업을 조정하고 자문한다. 시는 이어 민간전문가 10명을 공공건축가로 선정했다.

천안시 옛 오룡경기장이 새로운 복합스포츠타운으로!

2021.11.23.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옛 오룡경기장에서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착수 기념식을 열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리츠사업은 오룡경기장 일대에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어우러진 복합스포츠타운 및 공동주택 등을 함께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은 민간·지자체·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천안시가

오룡경기장 부지 현물출자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활용, 민간에서는 계획과 시공을 맡아 추진한다.

공주시, ‘도시재생사업’ 성공 모델 벤치마킹 잇따라

2021.07.19. | 공주시 | 도시정책과

공주시가 전국적인 도시재생 선진 사례지로 손꼽히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역 기관·단체 등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주하숙마을, 나태주풀꽃문학관, 추억의 하숙촌길, 제민천 등을 답사하였으며, 공주시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70~80년대 하숙문화 주제의 공주하숙마을, 유관순 열사·나태주 시인 등 인물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가로 골목길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공주시, 옛 공주읍사무소 개관...근대 건축유산 정보 한자리에

2021.08.12. | 공주시 | 문화재과 고도육성팀

공주시는 국가 등록문화재 제443호인 옛 공주읍사무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조성된 옛 공주읍사무소 1층에는 건축물의 연혁과 특징, 의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장이 설치되어 근대 공주 시가지 모습, 주요 근대 건물 모습 등 공주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2층에는 읍사무소를 재현한 포토존과 소규모 모임이나 세미나 등 시민과 관람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근대 모습의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

▼ 옛 공주읍사무소 개관식 모습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숲속도서관’, 대한민국 공공건축 최우수상!

2021.09.16. | 당진시 | 건축과 공공건축팀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숲속도서관’이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진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 독서공간을 조성하여, 도서관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형 차로 인한 옹벽을 내부로 끌어들여 도서관 책장을 만들고 길의 연장선인 전면부 담장을 설치해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아 편안하고 유연한 공간디자인을 하였다는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숲속도서관’



부여군,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

2021.10.01. | 부여군

부여군이 2021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군은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도시재생

대학,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참다운 도시재생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깊이 고민하고 모색해 온 부여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부여군은 규암나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① 백마강변 매력적인 저층주거지 조성, ② 규암문화 생산거점 육성, ③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여군, 체계적 빈집 정비로 정주 여건 개선

2021.11.25. | 부여군

부여군이 체계적인 빈집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빈집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빈집정보시스템 및 행정지원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정부 주도의 정책지원을 통해 공익목적에 우선하도록 빈집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서천군, 빈집 정비사업 적극 나선다.

2021.06.29. | 서천군 |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서천군이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각 읍·면 부읍·면장으로부터 빈집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보고받아 향후 빈집 활용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논의했다.

서천군,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021.10.15. | 서천군 | 관광축제과 관광기획팀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된다. 서천 판교 현암리는 198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국토개발에서 소외되고 2008년 판교역 이전으로 본격적인 쇠퇴의 과정을 거치는 등 근현대기 농촌 지역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또한, 동일정미소, 동일주조장, 장미사진관, 오방앗간(삼화정미소), 판교극장, 구 중대

본부, 일광상회 등 7건의 문화유산은 근대 도시경관과 주거건축사, 생활사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 서천 판교 ‘장미사진관’



청양군, 지역개발 공모 선정으로 ‘내일이U센터’ 조성

2021.08.02. | 청양군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청양군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청양연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돼 ‘내일이U센터’를 조성하게 됐다. 군은 청양읍 교월리에 조성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거점으로 ‘내일이U센터’를 청춘거리에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청춘거리에 청년LAB 조성, 블루집하우스 조성, 청춘거리 활성화, 청년 마을만들기 지원,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은 ‘내일이U센터’를 건립한 후 청춘거리 내 각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조직인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홍성군, 원도심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2021.08.25. | 홍성군 | 도시재생과 도시기반팀,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홍성군이 원도심 인프라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시 미관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중화 사업 추진, ②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보행 환경개선, 교통 편의시설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시설 정비, ③ 홍성천과 월계천의 야간경관 조성 및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 추진, ④ 원도심 인구환경을 고려한 스마트시

티 조성사업 추진, ⑤ 기존 청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등이며, 홍성읍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분주히 옮기고 있다.

홍성군,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기지가 활짝’

2021.09.14. | 홍성군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홍성군이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우선 홍성읍 남문동마을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후주택 수리, 주차장, 마을공원 조성 등 주거 인프라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남문동 아이 엄마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경제조직으로 성장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홍성읍 오관2리 동문동마을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별 특색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관 7, 8리와 광천 원촌마을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홍성군, 원도심 ‘기지가 활짝’ 남문동 빈집을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



홍성군, 신청사 설계공모 ‘홍주회랑 - 홍주읍성을 닮은 건축’ 선정

2021.10.06. | 홍성군 | 회계과 청사관리팀

홍성군은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에서 ‘홍주회랑 - 홍주읍성을 닮은 건축’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당선작은 홍주천년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미래의 천년을 열거할 상

징적 건축물로, 도시의 가장 큰 맥락인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홍주읍성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입면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당선작 '홍주회랑-홍주읍성을 닮은 건축'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조성 본격화!

2021.08.23. | 예산군

예산군은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 1100년 기념관'은 예산읍 벚꽃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돼 다양한 문화·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역사전시관 등이 복합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 '예산 1100년 기념관' 조감도



예산군, 관광르네상스 이끌 관광 개발 사업 순항... 기대감 높여

2021.10.07. | 예산군

예산군 관광 개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019년 개장한 예당호출렁다리를 기점으로 예산군은 추진 중인 사업이 순서와 기간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7개 사업으로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예당호 권역에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 모노레일, 예당호반 문화마당,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덕산권역에는 덕산온천휴양마을, 덕산온천관광지 공원재구조화사업이, 신암지역에는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 서막 오른다!

2021.10.13. | 예산군

최근 개관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산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를 핵심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 추진으로 군은 연간 2,600여 명의 전국 창업 교육생을 배출하고 연 12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산군, 고덕·신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확보!

2021.10.13. | 예산군

예산군이 '2022년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공모에서 고덕국민체육센터와 신암국민체육센터 두 곳 모두 선정됐다. 고덕국민체육센터는 고덕면 고덕시장 부지 일원에, 신암국민체육센터는 신암면 종경리 신암면행정복지센터 일원에 각각 실내체육관,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춰 조성될 예정이다.

태안군,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힘찬 출발!'

2021.06.28. | 태안군

태안군이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시설은 지하 1층 공동목욕탕, 지상 1층 다목적

적 실내체육관, 스포츠레저 체험존, 체력측정실 등으로 구성된 국민체육센터이다. 또한, 지상 2층에는 '자연을 담고 외부로 열린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통합자료실, 학습실, 동아리실, 북카페, 나무구름마당 등을 조성한다.

▼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조감도



태안군, 주민 삶의 질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호평'

2021.07.19. | 태안군

태안군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및 외벽 방수, 홍보용 도장공사,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고 미관 및 주민 건강을 저해하는 빈집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관 및 공공공간

천안시, 3차원 경관심의 우수기술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2021. 10. 28.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가 '3차원 경관심의 우수기술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받는 기술은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3차원 경관심의 솔루션 '빌드잇'이다. 3차원 공간정보는 평면 사진(2차원)을 넘어 현실과

흡사한 고해상도 입체 공간을 구현하는 정보기술이다. 빌드잇은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경관위원회 개최 시 심도 있는 3차원 경관관리 및 경관심의가 가능하도록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외부 조망, 스카이라인, 일조 채광, 인동거리,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체크 등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지원한다.

천안시, 체계적인 경관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추진

2021. 10. 29.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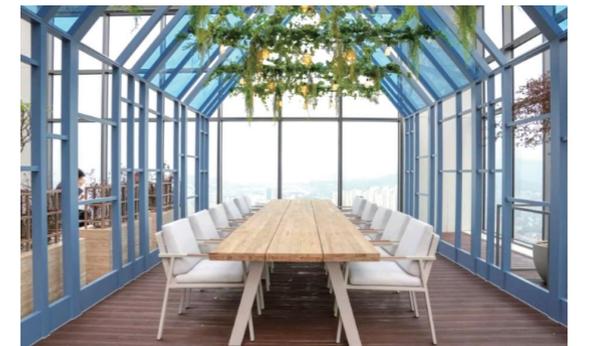
천안시는 '천안시건축사회와 함께하는 천안시 경관계획&디자인 협업'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의 경관구조 및 경관 권역별 권장색채와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조명 등 세부 계획, 그리고 천안시만의 독자적인 민관협력체제로 건축 설계 단계에서 경관·디자인 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을 집중시켜 협력하는 지원방식인 디자인 협업에 관해 설명했다.

천안시, 도시재생 랜드마크 및 첫 소통공간 '천안 타운홀' 개관

2021. 11. 04.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소통 문화를 선도할 '천안 타운홀' 개관식을 개최했다. 천안시는 원도심 랜드마크 조성 및 상권 활성화 등의 해결을 희망하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타운홀을 건립했다. 타운홀의 높이 204m 최상층 47층은 360도 펼쳐지는 파노라마 전망대,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 유리 온실 카페 등으로 구성돼 천안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역할과 천안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천안 타운홀' 유리 온실 카페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 조성
2021. 06. 07. | 공주시 |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공주시는 청소년 꿈 창작소에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월송동 꿈든솔에 위치한 청소년 꿈 창작소에 밸런스와 댄스, 보드, 바이크 등 스포츠 기구 4종을 설치,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을 조성했다. 미세먼지나 우천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고, 특히 관내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이에 시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소년 꿈 창작소 내부



공주시, 제민천 국고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완료
2021. 06. 21. | 공주시 | 문화체육과 문화시설팀

공주시는 제민천과 국고개 일원을 대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공주시가 2020년에 선정한 2개의 지역작가팀 참여 프로젝트이다. 우선 '제민천 이야기' 프로젝트는 '중동교~대통교' 사이에 조명과 벤치, 포토존, 그리고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송사리 조형물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국고개 흐르는 효심' 프로젝트는 공주시의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로 활용코자 도조 작품, 화분 조형, 이복이야기 동화책 및 국고개 가이드북 만들기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역사·문화·예술 중심지의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 '제민천 이야기' 프로젝트



▼ '국고개 흐르는 효심' 프로젝트



공주시, 폐교가 멋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탈바꿈
2021. 11. 01. | 공주시 | 주민공동체과

공주시의 한 초등학교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탈바꿈해 눈길을 끈다. 이번에 준공된 중장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4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건립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본관에는 농촌체험실을 비롯해 카페와 숙박시설 등이, 별관에는 다목적 강당과 식당이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앞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을 겨냥해 꽃차 및 고추장 만들기, 텃밭 가꾸기 등의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관련 숙박 및 야영장 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방문객 체험 및 교육, 마을주민 역량 강화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주시, 2022년에 '어르신 놀이터' 2호 조성
2021. 11. 12. | 공주시 | 경로장애인과

전국 최초로 공주시가 조성한 '어르신 놀이터'가 2022년도에도 추가로 조성된다. 이번에 추가로 조성하는 '어르신 놀이터'는 공주시 금흥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와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근력을 늘리는 기구뿐 아니라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가 설치된다. '어르신 놀이터'의 특징은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무장애 시설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아산시, 「아산중앙도서관」 실내정원 조성 추진 힐링 공간 기대
2021. 06. 25. | 아산시

아산시가 아산중앙도서관에 실내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도서관 중앙로비에 공기정화 효과가 입증된 식물로 벽면을 녹화하고 층별 플랜터 수목 식재로 대규모 실내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아산중앙도서관' 실내정원 예상 조감도



서산시, 해미천변 힐링공간 변모 기대... 공모 5억 원 확보
2021. 10. 28. | 서산시

서산시가 '2022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은 야간조명설치 등 디자인 재창출을 통해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해미천 구름다리 일원이다. '작은 일상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주변 해미국제성

지, 해미읍성, 해미천 벚꽃 등과 연계한 산책로 개선, 쉼터 조성, 경사로 등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특히,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성별, 나이, 장애, 언어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손쉽게 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시, 성 김대건 신부의 평등과 박애정신 담은 라파엘호 : 강경에 재현되다.
2021. 10. 26. | 논산시

논산시는 강경포구(라파엘호 공원)에서 라파엘호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라파엘호 복원을 계획하여 2021년 3월 본격적인 원선 제작에 돌입했다. 전통 한식으로 복원된 라파엘호는 강경산 옥녀봉에 위치하여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첫 미사를 집전했던 강경 구순옥 가옥 등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예배를 올린 'ㄱ자형 교회'를 복원하여 강경이 가진 종교적 상징성을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 재현된 라파엘호 준공식 모습



논산시, '논산형 세일즈'로 일궈낸 탐정호 시대 : 화려한 막을 올린다.
2021. 11. 30. | 논산시 | 미래사업과

논산시는 '탐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을 개최했다. 출렁다리는 동양 최대 600m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낮에는 탐정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절경을 선보이는 동시에, 밤에는 2만여 개의 LED로 이루어진 미디어파사드, 워터스크린

음악분수를 이용한 레이저쇼 등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준다.

▼탑정호 출렁다리 야경



계룡시, 역사문화쉼터 ‘지하도갤러리’ 개관... 문화 감수성 ‘UP’

2021. 08. 10. | 계룡시

계룡시는 역사문화쉼터 ‘지하도갤러리’ 개관식을 했다. 이번에 개관한 지하도갤러리는 역사사거리 지하에 있는 역사문화쉼터 내에 꾸며졌다. 이 문화 공간은 지역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창조 하는 ‘2020 계룡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당진시, 시민 스스로 우수경관자원 선정하고 보전한다!

2021. 09. 01. | 당진시 |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당진시가 ‘당진시 경관기록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2019년 선정된 21개 우수경관자원을 시민의 시선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굴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경관기록단은 당진시민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우수경관자원 21개소의 시간대별, 계절별 주요 조망점 경관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진시, 대난지섬과 소난지섬 연결하는 난지대교 개통!

2021. 10. 15. | 당진시 | 건설과 지역개발팀

당진시가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연결하는 난지대교 개통식을 가졌다. 폭 8.5m, 길이 400m의 연도교 개통으로 그동안 배로 이동하려면 20분이 소요되던 두 섬을 이제는 5분이

면 통행할 수 있다. 시는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지대교



당진시 남산공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국비 3억 원 확보!

2021. 10. 20. | 당진시 |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당진시 남산공원이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공원 등산로 및 공공공간에 대한 범죄예방·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사업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생활안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남산공원 내 보행로 개선, 야간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개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범죄예방 디자인 및 영역성 강화 등에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당진시, 농촌마을 창고가 청년창업공간으로!

2021. 10. 21. | 당진시 | 평생학습과 청년정책팀

당진시가 ‘면천창고’ 개관식을 했다. 2018년 당진시는 행정안전부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시는 청년창업공간을 운영할 청년창업가를 선발했으며, 2020년에는 실내 보강공사, 2021년에는 야외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청년창업가 3인이 운영하는 면천창고 카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면천창고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주변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활기차게 문을 열었다.

부여군,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 본격 추진

2021. 07. 28. | 부여군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사업’이 2022년도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공모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사업은 부여읍 군수리 백마강변 일원에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정원과 역사정원·향기정원·역사테마 주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여군은 이 사업으로 인근의 공남지·부소산·백제문화단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수륙양용버스·수변열차·열기구 등을 활용한 동선 체계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사업(조감도)



부여군, ‘부여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한다.

2021. 09. 28. | 부여군

부여군이 충청남도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부여읍 효공원 안에 ‘부여형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다. 군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경로당 등의 시설로 한정됐던 점에 착안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쉼터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공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서천군,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공사 착공식 개최

2021. 06. 29. | 서천군 | 투자유치과 투자기획팀

서천군 마량리에 있는 구)서천화력 부지에 한국중부발전에서 추진 중인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착공식을 열고 드디어 본 공사에 들어갔다. 해수욕장의 복원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조트 개발, 짚라인, 마리나 시설 선착장,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이르면 2021년 말 지구단위계획 지정 고시가 되고, 2022년에 군계획시설사업(지구단위)이 착수되어 이들 사업도 2023년 6월 해수욕장 복원공사와 같은 시점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서천군-새서울그룹 ‘설해원 서천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

2021. 07. 14. | 서천군 | 투자유치과 투자기획팀

서천군은 종천면 종천리 일원에 대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청남도-서천군-새서울그룹의 3개 기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6년까지 숙박시설(호텔, 콘도, 온천), 체육시설(골프장, 수영장), 상가시설을 갖춘 가족 레저형 종합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상 사업 부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IC에 인접한 지역으로 편리한 교통이 구축되어 있고, 희리산 자연휴양림, 서천 치유의 숲 등 천혜의 풍광이 갖춰져 있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치유 체험 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양군 ‘칠갑호 수상관광사업’ 충청남도 공모 선정

2021. 08. 02. | 청양군 |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청양군 ‘칠갑호 수상관광사업’이 충청남도 2022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확보한 사업비는 현재 계획 수립 중인 스카이워크와 연결되는 수상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수상 캠핑장, 짚라인 등의 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현재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관광거점 조성 등 칠갑호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수상관광사업이 곁들여지

면 또 하나의 내륙권 레저타운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게 되고 칠갑산 청정 산림자원과의 시너지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홍성군, '홍성천, 월계천 야간경관'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 조성

2021. 06. 08. | 홍성군 |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홍성군은 홍성천과 월계천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① 홍성천 및 월계천 환경(광학)분석, ② 체계적인 야간경관 형성 기본방향 및 연출계획, ③ 사업 대상지 주변 주야간 경관개선 방안 및 디자인(안) 제시, ④ 중장기 단계별 사업 계획 및 집행계획, 소요 예산, 유지관리 등 실행계획이 발표됐다. 군은 1 단계로 옥암교 및 홍성교 입면을 보수하고 산책로 구간에 수목 조명, 고보조명, 문라이트, 쉼터 주변 수목 레이저 연출 등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홍성천-월계천' 야간경관 조성 계획 예시(안)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 '땀 흘린다'

2021. 06. 21. | 홍성군 |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개발팀

홍성군이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의 땀을 흘렸다. 이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계획」의 하나로 전통음식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홍성군은 유교문화 정신에 입각한 전통음식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전시실, 체험공방, 전통 놀이마당 등도 조성하여 홍주성역사관, 안회당, 천주교 순교성지를 비롯한 주변 문화재와 연계,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 골칫거리 빈집 '주차장'으로 함께 써유

2021. 06. 21. | 홍성군 | 허가건축과 주택팀

홍성군이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도심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이 3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빈집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군,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홍성천 불 밝힌다!

2021. 07. 14. | 홍성군 |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팀

홍성군이 행정실적평가의 우수기관 포상금을 활용하여 홍성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원도심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홍성읍 홍성천 일원 하천 정비, 산책로 구간 수목 조명 및 홍성천 교량 경관조명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홍성군은 이를 통해 원도심 시가지의 이미지를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군, 여성친화 안전·안심 대학가 조성 '땀 흘려'

2021. 09. 02. | 홍성군 |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홍성군이 홍성읍 남장리 일대에 '여성친화 안전·안심 대학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남장리는 3개의 대학이 있는 지역으로 1인 여성 가구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범죄 사각지대 특성을 보이는 곳이었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등 설치 및 조도 개선, 보행로 안전 위해요소 제거, 커뮤니티 쉼터 조성, CCTV 및 비상벨 설치, 여성 안심 거울 및 안내사인 설치 등 방법 인프라 조성과 안전지킴이 집 설치, 골목길 가꾸기 등 치안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

2021. 09. 24. | 홍성군 | 경제과 지역경제팀

홍성군이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등 5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화재 알람 시설 설치, 주차공간 조성 등 소편환경 개선과 상인역량 강화 등 시장 경쟁력을 높여 왔다. 또한 비가림 시설 설치, 노후건물 보수, 화재 알람 시설 설치, CCTV 구축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과 젊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연계 모노레일 설치사업 본격 착수!

2021. 08. 03. | 예산군

예산군이 예당호 출렁다리와 연계한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예당호 모노레일은 1,280m의 순환형으로 건설되며, 24인승 차량 3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예당호 모노레일은 충남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야기가 있는 테마'를 주제로 경관조명을 설치해 보행 관람객과 모노레일 탑승객 모두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실감 나는 관람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예상도



예산군, 2022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예당관광지 등 3개소 선정

2021. 10. 18. | 예산군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 자연휴양림(수목원)이 '2022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15개 지방자치단체, 42개 관광지점이 공모에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군은 사업 선정에 따라 2022년에 15억 원을 투입해 관광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예산군, '2022년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2021. 11. 24. | 예산군

예산군이 '2022년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예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반디길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읍 창소리에 마을 안내 지도, 안전 지킴이집, 주민 쉼터, CCTV, LED센서등,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과거 도로교통의 중심점, 분기점 역할을 하는 중심지였지만 급격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이다.

태안군, 역사자원 체계적인 보존 정비 나서

2021. 06. 10. | 태안군

태안군이 관내 주요 역사자원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 ① 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신두리 해안사구의 종합정비사업으로, 한우 방목 및 소똥구리 복원 용역을 비롯해 토사 제거 공사, 목책 정비 공사, 외래 식물 제거 공사, 탐방 출입로 정비 공사, 모니터링 용역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② 충청남도기념물 제195호인 태안읍성 복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2021년 5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발굴조사를 완료했으며 2021년 말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③ 국보 제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의 보존을 위해 마애삼존불입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3월

문화재청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자동 정밀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거동 특성 분석의 내용을 담은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 중이다.

▼태안읍성 복원 조감도



태안군, 관광 태안의 '新 랜드마크', 전망대 사업 박차

2021. 07. 19. | 태안군

태안군은 만리포 전망대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영목항 나들목 주변과 몽산포 해수욕장에도 전망대를 조성 중이다. 먼저, 만리포 전망대는 높이 37.5m의 2층 규모 전망대로, 탁트인 만리포 해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외부를 밝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시각 효과를 구현하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만리포해수욕장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영목항 나들목에 조성되는 전망대의 경우 영목항 일대를 조망하기 위한 것으로, 높이 51m에 연면적 576㎡ 규모로, 태안 해안에서 자생하는 해당화의 꽃잎을 형상화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몽산포 전망대는 충청남도의 '테마형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타워형이 아닌 루프스테이 형으로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걸듯 올라가 몽산포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최고높이는 11m, 총연장은 256.9m다.

▼태안 전망대 내부(만리포)



태안군, '지역 균형발전' 위해 2025년까지 631억 원 투입!

2021. 08. 05. | 태안군

태안군은 총 7개 사업에 예산을 투입,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태안군은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태안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 지원사업, 태안관광 서비스 체질 개선,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 조성 등 7개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감도



태안군, '한국의 산토리니' 가의도북항, '어촌뉴딜300 사업' 道 최초 준공!

2021. 08. 30. | 태안군

태안군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가의도북항 준공식'을 갖고 어촌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가의도북항을 번모시킨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어촌마을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군은 가의도북항 사업을 통해 선양장 연장 및 암초 제거, 방파제 연장 등 섬 접근시설 정비, 쉼터 및 화장실 조성, 마을안길 포장, 지붕 및 담장 도색 작업 등을 실시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다.

▼도색으로 변모한 가의도북항 마을 모습



태안군, '새로운 색(色) 입힌다!' 주민과 함께 변화하는 영목항

2021. 10. 19. | 태안군

태안군은 '마을색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을색 만들기 행사는 지난 '고남2리 영목마을 특화개발사업' 공모의 하나로, 마을색 만들기(지붕, 벽 경관개선), 야간 경관조명 및 경관아트 조성, 힐링 공간 조성, 공중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날 참여자들은 지붕과 벽 등에 밝고 통일된 색을 입혀 기존의 어두운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태안군은 영목항이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화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태안군 영목항 마을색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



태안군, 명품 '학교숲',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2021. 11. 05. | 태안군

태안군 안흥초등학교 내 학교숲이 '2021년도 학교숲 우수사례' 공모 결과 '신규조성'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군은 안흥초 내 교목 및 관목 1,787그루와 지피식물 7,950본 등을 심고 야외무대 조성 및 자연 판석 포장을 실시하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 조성에 나섰다. 이후 해당 공간이 학생들의 야외 관찰 학습장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을 타 주민들의 방문도 늘어나는 등 마을의 새로운 자연 친화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현재도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자연 쉼터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안흥초등학교 학교숲 전경



마을만들기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마을 '작은 갤러리' 개최

2021.10.21. | 공주시 | 행정지원과 시정팀

공주시 우성면은 '작은 갤러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예술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마을주민 30여 명이 만든 작품을 선보였다. 마을회관 옆 공간에는 고흥 어르신들이 도자기로 만든 꽃병과 접시, 한지로 만든 잡지꽂이 등 30여 개의 개인 작품이 전시되었고 도천리 마을의 사계절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낸 공동 작품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도천리 마을 ‘작은 갤러리’



공주시, 3년 연속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수상

2021.11.19. | 공주시 | 주민공동체과

공주시 정안면 소랭이마을이 ‘제4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소랭이마을이 동상에 입상하면서 공주시는 지난 2019년 꽃내미풀꽃이랑 마을, 2020년 예하지마을, 어무실구정승마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령시,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에서 보령 학성2리 호동골과 첫떼기마을 ‘전국 1위’

2021.09.15. | 보령시

보령시는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천북면 학성2리 호동골과 첫떼기마을이 경관·환경 분야 전국 1위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호동골과 첫떼기마을은 바다와 농촌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뛰어난 마을로 2017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공동 농기계 구입, 온라인 카페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로 2019년과 2020년 만세보령 마을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산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동네가 달라졌어요.

2021.07.06. | 서산시

서산시가 ‘2021년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마을 꽃길 조성, 마을 행사 홍보영상 제작, 특색있는

문패 설치 등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시행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곡면 장현1리와 운산면 팔중리는 도자기 문패와 우편함을 제작했으며, 부석면 지산3리는 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하여 마을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대신읍 대로2·3리, 인지면 화수2리, 운산면 갈산1리, 고평리, 성연면 예덕1리 등은 마을 주변에 꽃길을 조성했다. 지곡면 장현2리는 마을 주요 행사인 벚가리대 세우기 영상을 제작하는 등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산시 ‘2021년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당진시 정미면 산성리, 충청남도 평가 2위 우수마을 선정

2021.07.06. | 당진시 | 공동체새마을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당진시 정미면 산성리 마을이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문화·복지 분야)’ 충청남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산성리는 평균 80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회춘유랑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및 공동체 활동을 하며 마을주민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마을의 귀농·귀촌인들 또한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종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기부 공연을 다니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당진시,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선정!

2021.07.09. | 당진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

당진시가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중앙공모에 최종 선정돼 신평면 거산리 일원에 ‘신평 행복잇슈(ISSUE)센터’를 조성한다. ‘신평 행복잇슈(ISSUE)센터’는 축사, 빈집, 빈 창고를 철거하고 부족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는 건물로, 지상

2층 2동으로 신축되며 ‘건강잇슈 zone’, ‘청소년잇슈 zone’, ‘마을공동체잇슈 zone’, ‘돌봄잇슈 zone’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평면의 축사를 이전시키고 지역 내 꼭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

2021.10.01. | 당진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

당진시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에 최종 선정돼 합덕읍 운산리 일원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함께 플랫폼 신축, 구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문화·공감플랫폼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그네 마을상회 리모델링 및 버그네 순례길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 골목길 조성 및 집수리 지원, 기금 및 부처연계사업 등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산군,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박차’

2021.06.02. | 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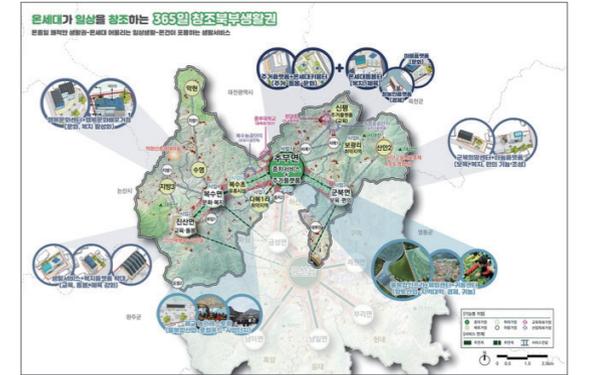
금산군이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2024년까지 어울림센터, 우리동네 씨전마당,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골목길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참여, 역량 강화, 이웃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예비사업을 추진했다.

금산군, 오는 2026년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 총력

2021.06.18. | 금산군

금산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 주요 대상지는 북부 생활권으로, 계획된 사업들은 온세대 돌봄터·키움터, 다목적복지회관·희망센터·행복문화센터, 갯잎 융복합 가공 시설·체험 관광 인프라 등이다.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부여군, 400년 된 산촌마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된다.

2021.08.31. | 부여군

부여군은 농촌진흥청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공모사업에서 ‘부여 산촌 농경문화 관광 상품화’를 소재로 공모신청해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인 옥산면 신안2리는 400년 된 산촌마을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밤과 버를 주로 재배한다. 부여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 마을이 보유한 다랭이논, 둥방, 소류지 낚시터, 전통 농기구, 숲속 오솔길 등과 더불어 연간 만 명이 찾아오는 체험농장을 활용해 농경문화를 소득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천군 한산면 동자북마을,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동상 수상

2021.09.14. | 서천군 | 지속가능지역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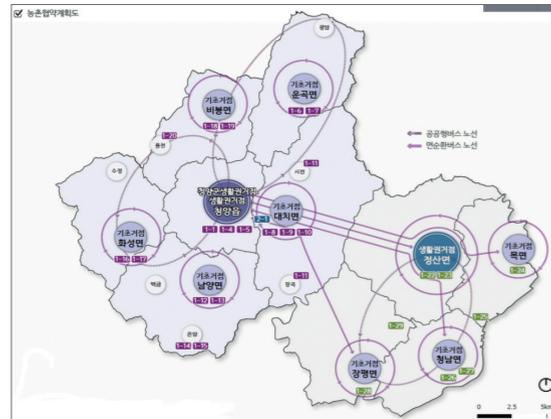
서천군 한산면 동자북마을이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소득·체험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산면 동자북마을은 2007년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갈숲지구 한옥 조성사업을 거쳐 충청남도가 주관한 특화음식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산소곡주, 한산세모시 등 지역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소득 창출 등 공동체 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청양군, 농촌협약 발판 지역개발사업 집중

2021.06.28. | 청양군 | 농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확정된 청양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농촌협약을 발판으로 보육, 복지, 교통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개 읍면 거점별로 생애주기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교통 모델을 만들어 원활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고도화하고 농촌자원 융·복합화와 푸드플랜을 통해 미래 농촌경제의 기반도 다진다. 청양군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청양을 위해 민관협력과 주민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특성화된 조직을 양성하면서 청년층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해 갈 예정이다.

▼ 농촌협약 계획도



홍성군, 마을특색 살린 ‘품앗이 마을축제 기획 공모’

2021.06.01. | 홍성군 | 행정지원과 행정팀

홍성군 농업정책의 거버넌스 성공사례가 ‘강원·대전·충청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시상식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홍성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농촌의 현실에 맞서 지역의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지역 거버넌스 ‘홍성통’을 운영해 마을만들기, 농촌관광,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12개 부서, 민간 144여 개소가 참여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시상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홍성군,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267억 원 투입

2021.07.08. | 홍성군 |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홍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홍성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 홍산마을 육성을 위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교통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홍성군, 마을 교육 전문성 UP! 마을학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2021.08.31.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이 마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에 마을학교 8개소와 14개 학교를 연계하여 2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및 다른 지역 마을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마을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 밖에 홍성군은 마을학교 파일럿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마을학교 역량강화, 수요맞춤형 교육, 홍성행복교육지구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등 마을학교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예산군, 2021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2개 마을 선정

2021.08.23. | 예산군

예산군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광시면 마사리, 대흥면 대롤리 2개 마을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사리는 ① 임존성 마을활성화센터 조성 및 마을회관 기능개선, ② 임존성 마을 정원 조성, ③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대롤리는 구)경로당 및 마을창고를 리모델링 해, ① 옷 수선 공방 조성, ② 대롤마을박물관 조성, ③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 상옥2리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 선정!

2021.08.23. | 태안군

태안군이 ‘2021년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대상지는 상옥2리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음의 고향 상옥2리’라는 비전 아래 ‘함께하는 고나리 놀이터, 쾌적한 고나리 심터, 행복한 고나리 배움터’를 목표로 농부학교, 마을경관 미래 만들기, 가가호호 환경지킴이, 고나리 잔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천안시, 별빛우물 성정시장 상점 간판 ‘반짝반짝’ 변신

2021. 11. 10.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가 별빛우물 성정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천안시는 주변 경관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간판을 아름답게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특히 ‘별빛우물 성정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간판 상단에 별빛 점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특색있는 시장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 천안시 별빛우물 성정시장 간판개선사업 완료 모습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효과 ‘특독’

2021. 11. 19. | 천안시 | 교통정책과

천안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시범학교인 안서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안서초와 불당초가

어린이 통학로 개선계획 수립영역에서 통학로 개선사업 시범지로 선정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를 표기한 유색 도로포장 및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이는 등하굣길 어린이와 운전자들에게 뛰어난 시인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천안시 동남구 안서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후 모습



공주시, 세계유산 공산성에 최첨단 안내판 설치 운영

2021. 11. 24. | 공주시 | 문화재과

공주시는 공산성 일원에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최첨단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영상패널(화면판)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안내판은 문화재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형태로, 화면 밝기 조정, 눈부심 방지, 비나 먼지에 대한 저항 등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공산성 내 백제 토성 구간과 쌍수교에는 터치스크린형(접촉형) 안내판이 설치됐다. 공산성에는 반복 재생형 안내판, 왕궁과 그 부속 건물지로 추정되는 두 곳에는 복원 콘텐츠 재생형 안내판이 각각 설치됐다. 특히, 복원 콘텐츠 재생형 안내판은 3D(3차원 입체) 디지털로 복원하여 왕궁과 부속 시설 같은 유적들을 생생하게 안내하고, 부속 건물지에는 가상현실(VR) 기기를 설치해 걸어다니는 가상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입체적 안내가 가능한 접촉형 안내판



보령시,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기동반 활약 ‘눈에 띄네’

2021. 08. 06. | 보령시

보령시 곳곳의 도시공원이 시설물 정비기동반의 활약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돼 호평받고 있다. 정비기동반은 관내 조성된 도시공원 46개소의 제초, 시설물 도색 및 환경정비 작업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소공원, 녹지대, 공한지 심터에 설치된 정자, 운동기구, 벤치 및 파고라 등 편의시설의 보수·정비 활동을 펼쳐왔다.

논산시, 밤에도 안심하세요! LED 건물번호판 안심 불빛 설치

2021. 07. 23. | 논산시

논산시가 20곳의 공중화장실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에 태양광 LED 조명을 결합해 야간에도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를 함께 거두기 위해 추진됐다.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당진시, 7월부터 간판 디자인 경유제 시행

2021. 06. 17. | 당진시 |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당진시가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내 ‘간판 디자인 경유제’를 도입 시행한다. 간판 디자인 경유제는 전문기관의 디자인 컨설팅 절차를 거쳐 적법하고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관내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건축물 및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한 건축물에 부착하는 인허가 대상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서천군, 생활밀착형 공감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 높인다.

2021. 11. 09. | 서천군

서천군은 2022년부터 5대 생활밀착형 공감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① 도심 속 우범 지역에 CCTV 7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서천읍과 장항읍 도심 지역 내 노후화된 가로등 400개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② 노후화된 교통신호기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서천읍 군사리 위험 교차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③ 13개 읍·면 대상으로 무단방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④ 경로당 및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중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⑤ 대형 농기계에 한정되어 운영되던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처리 사업을 소형 농기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청양군,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2년 연속 유치

2021. 08. 02. | 청양군 |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

청양군이 ‘2022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군은 ‘머무르고 싶은 거리 청양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신청했으며, 2022년부터 청양읍 문화원 사거리에서 군청 방면 700m 구간에 있는 건물 51동, 128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주민과 업소 상인의 직접 참여와 특화 디자인으로 진행되며 청양읍 중심거리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성군, 2021년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완료

2021. 08. 26. | 홍성군 | 도시재생과 도시기반팀

홍성군이 10개소의 일반도로표지판을 발광형 LED 도로표지판으로 교체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의 하나로 광천읍 인근 도로표지판을 LED 안전 표지판으로 교체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공영주차장 LED 안내표지판 설치의 주차장의 정확한 위치를 안

내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LED 도로 표지판



홍성군, 2021년 도로 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1. 10. 27.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이 ‘2021년 충청남도 도로 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홍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동절기 제설재 사전준비, 도로사면 및 길어깨 정비, 도로표지 및 가로수 정비, 배수시설 및 비탈면 정비, 안전시설 정비, 도로시설물 청결 상태 등의 기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